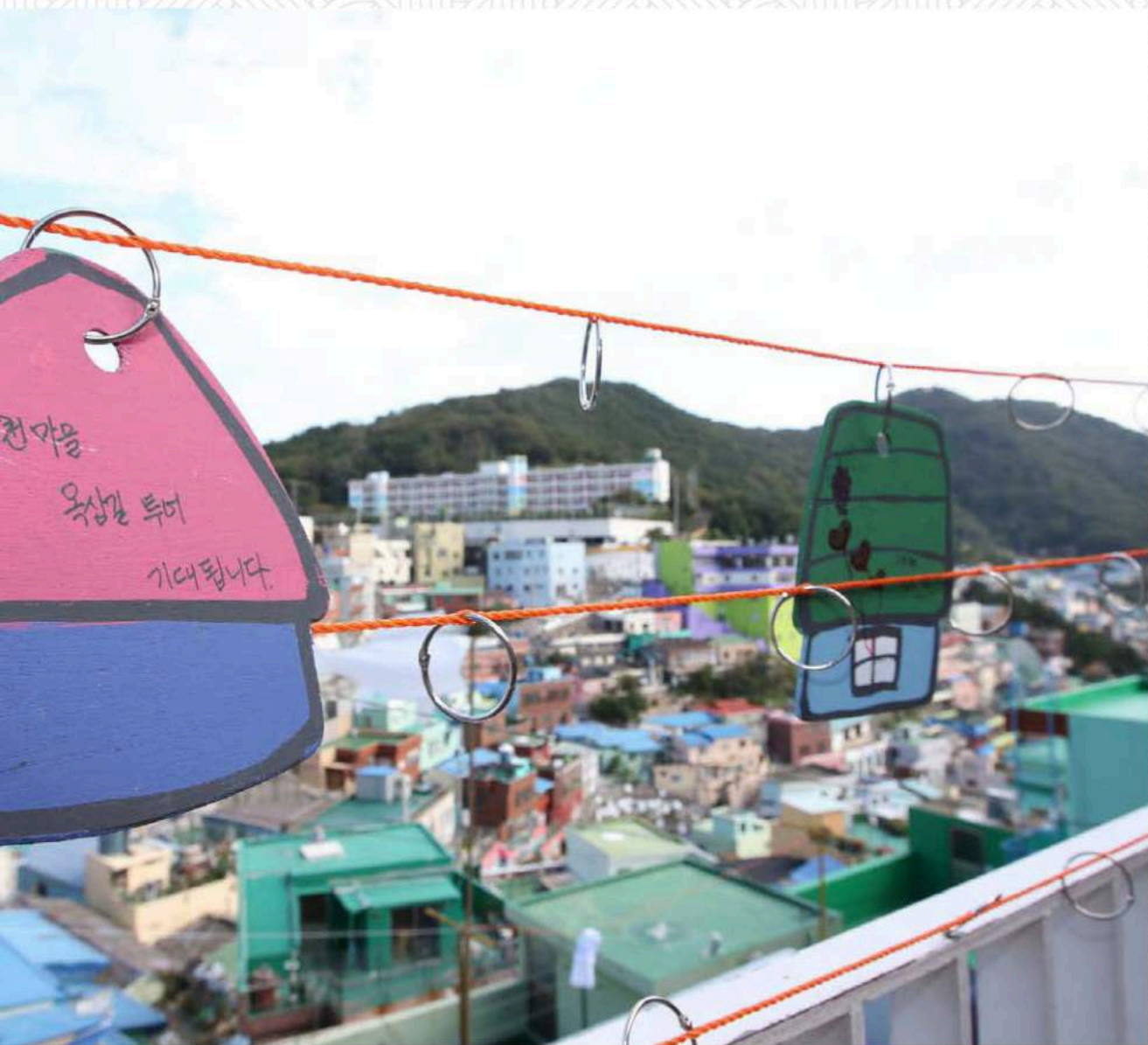


공민그리코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27 Winter 2017





CONTENTS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여는글

06 '공감 그리고, 27호 김희진

#1 부산문화재단에 바란다

12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때 이희길

#2 말문을 열다

18 예술과 함께 걷자, 옥상길 따라 이정운

22 부산 웹툰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웹툰 작가 배민기를 만나다 방호정

28 자기만의 색깔을 갖춘 부산시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동길산

34 유휴학교는 우리 마을 실험실로 바꾸자 홍순연

3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성장드라마이다 오상미

#3 문화 돋보기 I

46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동해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재국

50 부산의 문화유산 [좌담]

#4 문화 돋보기 II

56 발간물로 보는 부산문화재단 10년 장덕현

#5 속살을 보다

62 다르면서도 같은 길 '부산의 마을버스' 황선열

66 역사의 타전 위에서 사공진을 그리다 권오혁

70 일상의 거리예술, 꽃을 피우다 황해순

74 금정문화재단, 기초에서 문화를 말하다 설영성

#6 손을 잡다

78 이주자들의 코리안 드림 Danny R. Guerra

#7 재단은 지금

86 부산문화재단은 지금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통권 27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비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17. 12. 28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051-744-7707 www.bscf.or.kr

발행인 유종목

편집위원 구본호, 김희진, 동길산, 방호정, 이성훈, 정만정

편집기획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디자인·제작 MANBO-DESIGN



부산문화재단 '공감 그리고' 27호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공감 그리고」는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공감 그리고」 27호

글 김희진

(편집위원/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장)

2017년의 마지막 호이자 27호인 「공감 그리고」는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넘기고 2018년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 갑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는 한파 속에서 최소한의 열량으로 동면하며 새롭게 펼칠 꿈과 상상을 준비해온 부산의 문화예술인들과 그들을 기다리며 함께 견뎌온 문화시민들에게 이번 「공감 그리고」가 따뜻한 입김처럼 온기를 전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7년 부산의 주요 문화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맞는 이슈에 대한 글들이 주로 게재되었습니다. 특히 부산문화재단의 10년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의 글을 통해 부산 문화의 중심체로서의 부산문화재단의 역할을 재점검 하였습니다. 거리예술 원년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거리예술축제를 지원한 2017년의 성과들을 인터뷰와 공연 리뷰를 통해 소개 및 점검하였습니다. 부산시립관현악단의 새로운 지휘자 최수열과의 대담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수기를 통해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도 담아냈습니다.

조선통신사 기록유산 유네스코 한·일 공동 등재를 환영하고 의미를 새기는 글과 부산문화재단에서 발간한 10년간의 출판물을 살피는 글을 통해 부산문화재단의 성과들을 알리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특히 부산문화재단 발간물 중 최근 발행되어 화제를 모은 <부산의 마을버스>를 문학 리뷰를 통해 심층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과 함부르크 청년작가들의 교류 전시를 평가하고 부산 최초의 기초문화재단인 금정문화재단의 활동을 소개하고 알리는 계기를 갖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이주 노동자로서 인권 활동가로 생활하는 데니 구에라의 글을 통해 부산의 다문화 환경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공감 그리고」는 일 년에 두 차례 부록을 통해 부산의 문화, 환경, 자연 등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소개해 왔는데요, 이번 27호에서는 부산에 있는 박물관들을 예술가들이 직접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평면적인 박물관 해설이 아니라 작가들의 상상력이 가미된 박물관 소개 글들은 박물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가보지 않았더라도 예술가들이 쓴 박물관 이야기를 통해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잡지인 「공감 그리고」는 부산의 문화와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부산 문화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나누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잡지를 읽고 이용하는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공감 그리고」와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가 되어가길 기대합니다. 2018년에는 「공감 그리고」를 통해 부산문화가 곳곳으로 알려지고 더욱 문화로 융성하고 행복해지는 도시, 부산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때

글_이희길

(부산MBC 정책기획위원 겸 창사 60주년 추진단장)

출범 10년째

부산문화재단의 공과는?

부산문화재단이 출범 10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해운대 센텀시대에서 소외지역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겠다고 감만동으로 이전한 지도 4년이 되었다. 부산문화재단은 그동안 '또따또가'로 상징되는 창작예술인 지원활동, '사상인디스테이션' 등 청년문화 지원활동,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출범과 감만창의문화촌 활동을 비롯해 많은 긍정적 기능을 해왔다. 특히 2017년은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문화유산 지정으로 뜻 깊은 한 해였다.

이런 많은 성과에도 최근 부산문화재단은 시민들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이버싱 벨 사태'와 함께 조직 수장의 사퇴와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위기를 맞았던 것과 함께 부산문화재단도 똑같은 위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문화재단 역시 설립 초부터 수장의 임명을 둘러싼 갈등 표출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

에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반면, 부산문화재단은 시민들의 시야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부산문화재단에 바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의뢰 받고 나름 부산지역의 문화계에서 활동하는 지인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직접 종사자에서 문화담당 기자, 부산시 관계자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었다. 부산문화재단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고... 대부분은 공통적인 이야기를 했다.

크게는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문제점부터 문화분권 이야기, 부산시와의 관계와 독립성 문제, 재단이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적고 위탁사업이 80% 이상이라는 한계, 지원 선정과정에서 심사의 투명성과 여러 단체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나눠먹기식 예산배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지역문화계의 분파성부터 재단이 행정조직처럼 어느 순간부터 점차 관료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 그리고 내부 전문성 및 역량강화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때

촛불혁명의 교훈, '조심으로 돌아가라'는 의미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단이 출범초의 각오로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론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부산문화재단은 출범부터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되풀이되는 똑같은 과제가 그대로 제기된다는 것은 역으로 바로 지금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당위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교체되어 적폐청산 활동이 사회전반에서 제기되는 지금이 바로 새 출발의 적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의 과제 중에서 가장 먼저 제기해야 할 부분이 바로 조직의 수장 선임문제다. 어떤 이가 선임되고 또 선임과정은 어떠하며 부산문화에 대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를 통해 또 부산시와 관계자 설정도 시급한 과제다.

부산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재단의 활동과 성격이 매번 바뀌어서는 안 된다. 부산시의 위탁업무를 집행하는 한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는 있다. 시나 정부 예산을 위탁 집행하는 입장에서 관리감독은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모든 분야에서 사사건건 부산시가 통제하는 산하 기관 성격으로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해묵은 이야기이지만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 운영체제"가 새로운 부산시장 때는 확립되어야 할 첫째 과제가 아닐까?

타성화 된 관행, 투명성*공정성 지적도

운영측면에서도 타성화 된 기존 관행을 되짚어 보고 반성해 봐야 한다. 많은 분들이 재단이 너무 많은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서 나눠먹기식 예산배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예산지원 사업 하나를 발표할 때마다 불만을 가진 쪽에서 성명서며 집단행동으로 항의하고 하니, 분야별로 조금씩 안배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도 일견 이해된다. 그렇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고 실제로 큰 성과로 이어지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그런 방식을 고수할 것이냐는 것이다.

지원 선정과정에서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심사위원 자체가 분야별 안배식이다 보니 심사위원이 아니라 오히려 분야별 대표 같은 성격으로 전략한다는 것이다. 부산이라는 지역사회의 인맥구조상 한 다리 건너 거의 아는 사이고, 또 예산배정 자체가 단체별 위상으로 생각하는 풍토를 개선하지 않고서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원탁회의 같은 형식을 빌려서라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어떤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하여 합의점을 찾아보자. 그래서 힘을 모아보자. 부산문화의 큰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표상품 하나쯤은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가치 재정립, 관료화되어 간다는 비판 겹쳐히 수용해야

이런 외형적인 부분 외에 재단출범 당시 제시했던 핵심가치인 해양, 미래, 순환이란 비전 실천도 되돌아볼 때다. 해양과 관련한 부분이나 미래의 문화도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이런 기본 가치를 되짚어 봐야 한다. 시대적 변화 속에 기본적 방향과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단이 어느 순간 실적위주로 되면서 부산시와 같이 관료조직화 되고 일반 공무원과 비슷해져 간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지적은 특히 새길 부분이다. 너무 많은 일을, 너무 많은 분야에서 백화점식 분배를 통해 실적위주로 나아가는 현실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문화예술 현장에서는 행정조직인 부산시가 할 수 없는 분야에서 별도의 재단이라면 다른 정책 다른 운영방식을 기대하고 있다. 현장과 좀 더 호흡하고 함께하라는 요구다.

문화누리카드 개선, 감만동시대 토착화, 찾아가는 문화복지로!

재단의 위탁사업에서 가장 개선할 부분을 지적하는 이도 있었다. 특히 문화누리카드사업은 문화복지와 문화향유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 영화보기에 사용되다 보니 그 혜택이 오히려 대기업에 돌아가는 형태여서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문화소외지역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사상인디스테이션을 활성화하고 재단본부를 감만동으로 옮기는 등 사고의 전환과 실천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흥타아트촌을 비롯한 일부 시설은 관리 문제점도 제기되는 만큼 오래된 사업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재단의 감만동 시대가 4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뿌리내렸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시민들이 부산문화재단이 어디에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할 만큼 존재가 미약하다는 점은 되돌아 볼 부분이다. 감만동에 창의문화촌을 건설했지만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상생협력은 어떻게 변모했는지 궁금하다. 상당수 주민은 문화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현실이다. 보여주기식이라 해도 각종 행사나 마을가꾸기 같은 꾸준한 지역화작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재단으로 찾아오게 하는 행사보다 인근 초등학교나 마을 곳곳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행사와 기획을 더 늘려가는 것은 어떨까?

서울 안 가? VS 왜 서울 가?

몇 달 전 부산의 젊은 청년밴드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들은 말이 기억난다. 자신들이 어느 정도 알려지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왜 서울 안 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 청년 대표는 되물음으로 대신했다고 한다. “왜 서울 가?” 우리가 공연을 보러 서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찾아와 보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당찬 생각이고 그런 청년문화 활동이 부산문화의 뿌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많은 분야에서 그런 사례가 꽃필 수 있도록 부산문화재단이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 꼭 나만의 생각일까?

마침 2018년은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부산문화재단도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것이다. 부산문화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실천능력을 갖춘 강단 있는 인사로 재단이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부산지역 문화의 중심에 있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재단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갖고 새로운 부산문화운동을 주도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전문성강화 통한 역량 강화와 지역문화예술인 호응 따라야

끝으로 재단이 오히려 전문성을 더 높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단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때 독립성과 자율성도 더 얻을 수 있고 지역문화를 선도할 수 있을 거라는 이유다. 그런 면에서 재단내부의 자성과 노력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과 호흡할 때 더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호응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문화재단이 그동안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여겨졌으나 그 역시 한계에 부딪혔다는 말도 있다.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한계는 있다는 말이지만 내부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문 **을** **열** **다**

18

예술과 함께 걷자, 옥상길 따라 이정윤

22

부산 웹툰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웹툰 작가 배민기를 만나다 방호정

28

자기만의 색깔을 갖춘 부산시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동길산

34

유휴학교는 우리 마을 실험실로 바꾸자 홍순연

3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성장드라마이다 모상미

38



38



18



22



28

예술과 함께 걷자, 옥상길 따라



예술과 함께 걷자, 옥상길 따라

예술과 함께 걷자, 옥상길 따라



글 이정윤(동아대학교 미술학과 조교수, 시각예술가)

일시 2017. 12. 28. 목요일

장소 부산 금정구 이정윤 작업실



예술과 함께 걷자, 옥상길 따라

Q. 박연정 선생님에 대해 독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저는 한국무용 전공자이고, 현재 이팝댄스컴퍼니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은 부산문화재단 감만창의문화촌 입주단체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예술, 음악, 만화, 스트리트댄스,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약 6개월간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 거리예술공연 '옥상길 따라'를 기획하고 공연을 올렸습니다.

Q. 저도 '옥상길 따라'라는 공연을 직접 관람했습니다. 흥미로운 공연 제목처럼 정말 감천문화마을의 감내어울터에서 시작해서 도보로 '옥상' 곳곳을 굽이굽이 좁은 골목길 따라 산책하듯 관람하는 특별한 '거리예술'을 경험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떤 계기로 이런 공연을 기획하게 되셨나요?

A 네, 아무래도 장소에 대한 관심이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이 현재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예술마을로 유명한 곳이지만, 1950년대에는 6.25 피난민들의 힘겨운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산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산자락을 따라 규칙적으로 늘어난 계단식 주거형태와 모든 길이 통하는 미로 같은 골목길의 경관은 감천만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술가로서 그 길 위에 춤을 짓고 싶도록 하는 영감의 원천을 제공했습니다. 지금은 지난 몇 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된 공공미술프로젝트로 그 내외관이 많은 조형물과 벽화로 화려해져서, 이국적인 외형을 자랑하는 부산의 대표적 문화콘텐츠가 되긴 했지만,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감천문화마을의 진정한 역사적 의의와 내면의 가치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거리예술'의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Q. '거리예술'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그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고, 또 나누고 싶으셨군요. 저는 공연을 관람하는 방식도 흥미로웠어요. 마치 '산책'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앞선 무용수 혹은 배우의 움직임이나 대사에 따라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연의 배경음악은 이어폰을 끼고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 들을 수 있었던 점도 특이하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기존에 경험했던 거리 예술 방식과는 다르게 '투어형'으로 거리예술을 기획하신 데에도 이유가 있나요?

A 감천문화마을만의 독특한 지형을 활용하고 좀 더 내밀한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단, 틈, 곳곳의 작은 잡초들, 흔적들, 그리고 빨래들, 즉 지난 시간과 일상의 삶이 스민 골목에 춤과 음악, 몸짓으로 관객들을 깊숙하게 끌어들이고 싶었죠. 피상적 소통을 넘어 역동적으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나온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술과 함께 걷자, 옥상길 따라

Q. 공연은 처음에 아코디언→춤→놀이예술→정가→연극 순으로 옥상을 스킵으로 진행되었는데, 아무래도 대사보다는 움직임이나 소리가 중심이 되는 공연이다 보니 내용적인 서사를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A. 보행을 통한 동네 순례로 1950년대 그 때 그 시절로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시간여행'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천 문화마을의 형성기 또는 어려웠던 그 시절에 대한 회고와 추억을 담은 에피소드들, 이를 테면 하루 종일 가족을 먹이겠다고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가 시원찮아 쓸쓸하게 귀가 하는 아버지의 뒷모습, 돌아가지 못할 고향을 그리다 한을 담은 노래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등 그 장소의 에피소드를 실제 거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수집하고, 각색해서 마을의 역사와 삶의 애환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투어형 거리예술'로 풀고 싶었습니다.

Q. '옥상'은 특정 장소의 문화적인, 혹은 역사적인 코드부터 개인적인 기호까지 읽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왔는데, 특히 동네 옥상에 널려 바람에 나부끼는 빨래들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대, 좋아하는 색깔도 짐작하게 하기도 하죠. 또 어떤 동네에 가면 옥상에 소박하지만 각자의 개성대로 정원을 만들어 놓기도 하구요... 박연정 선생님이 선택한 '무대'로서의 옥상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A. 저도 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이 처음에는 더 편하고 익숙했어요. 그런데, '거리예술'을 거듭하다보니 현장성, 장소성이 퍼포먼스와 같이 읽혀 질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 있었어요. 특히 감천문화마을의 옥상은 어느 곳에서 있든 수평으로 넓게 펼쳐진 이웃들의 삶이 있는 옥상, 그 너머 저 멀리 바다풍경까지 한눈에 들어오죠. 무용가가 발을 딛고 서서 춤을 추면 그 모든 풍경이 무대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액자 없는 거대한 그림 속의 움직임. 지금이 일상을 간직한 '평범한' 공간이, 그 위에서 움직임을 통해 지난 시간을 부르고, 과거와 현재의 삶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같은 '장소'가 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Q. 네, 제가 보기에는 '옥상길 따라' 공연은 삶과 예술의 거리를 조금 더 좁혀볼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박연정 선생님께서 보시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감천문화마을은 수많은 좁은 골목길이 이어진 곳으로, 그 끝없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렇게 거리 예술 공연과 관광지의 투어를 결합한 실험적인 구성 방식은 보기 드문 '거리 예술'형식으로서, 타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공연을 지역적으로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용, 연극, 음악, 체험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내러티브로 연결하여 하나의 공연으로 완성하면서 다원예술로서 예술의 장르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또 다른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Q.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일상 공간에서 작품을 만들거나, 공연하는 것은 '장소적' 맥락에서 이해하면 그 의미가 깊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점도 있을 듯합니다. 공공미술이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진행되지만, 때로는 그들의 삶을 침해하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번 거리예술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어렵지 않으셨는지요?

A. 네, 사실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실제 생활 공간에서 밀착형으로 공연을 진행해야했기에, 사전에 소통을 위한 준비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주민들과의 대화와 리서치를 통해서 주민분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일상에 불편을 최소화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소를 실제 생활공간인 옥상으로 섭외하는 부분이 쉽지 않아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열쇠였던 만큼, 많은 시간을 대화로 할애했습니다. 다행히 지역주민들도, 공연을 관람하러 오신 참여자분들도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의 '거리예술'의 활성화와 저변확장에 기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박연정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거리예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A. 우선 예술을 누구나 쉽게, 그리고 가깝게 경험하기에 '거리예술'만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일상의 장소에 나타나는 '뒤편의 예술', 그러나 그냥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와 울림이 있는 움직임, 소리, 시각적인 구성 등이 함께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거리 예술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연정 선생님과 인터뷰를 통해 '거리예술'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확인하게 되었고, 설치미술가인 저로서도 매우 흥미 있는 주제였습니다. 관객이 어렵게 찾아오는 예술이 아닌, 관객을 찾아 떠나는 '예술', 일상 속의 '선물' 같은 공연을 함께 또 하고 싶네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스런 인터뷰> 만화가 배민기 **부산 웹툰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웹툰 작가** **배민기를 만나다.**

글_ 방호정(본지편집위원, 작가)

수영팔도시장 근처에 위치한 만화가 배민기가 직접 운영하는 작은 PUB DROPBAR 드롭바에서 배민기를 기다렸다. 벽면 가득 직접 그린 만화로 채워진 드롭바는 마치 배민기의 자그만 개인 갤러리 같은 느낌이다.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화가들의 아지트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만화 팬이라면 반드시 들려봐야 할 핫 플레이스다. 평소 흠모했던 만화가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수다를 떠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부산 글로벌웹툰센터에서 작업을 하다 허겁지겁 달려온 배민기는 새해인사와 함께 생맥주를 두 잔 가득 뽑아 온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렇게 새해부터 음주인터뷰가 시작되었다.

■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2008년도에 단편집 모스키토신드롬으로 데뷔했어요. 그 후로 고려시대 삼별초를 다룬 쌍담, 치우천왕의 후손들이 한국에 자리를 잡았다는 설정의 돛가비의 나라 등 사극위주로 활동을 했는데 우연찮게 다문화 를 그린 몽땅분고 올림픽이 인기를 얻고 지금은 현대 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만화가 배민기입니다. 삼류작가죠. 그리고 2012년도에 발족한 부산경남만화가연대에 2대째 대표를 맡고 있고요.



■ ■
부산경남만화가연대는 어떤 단체인가요?

- 처음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화가 7~8명이 모여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부당한 계약이나 불미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작가들이 한두 명씩 모이다 보니 5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서 부산경남만화가 연대라는 이름으로 합치게 된 거죠. 지금은 15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부산에서 부산 글로벌 웹툰센터도 만들어주고, 부산 웹툰 페스티벌도 진행 하게 되고,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니 많은 업체들과 협업도 하게 되고, 단체가 만들어지니까 이전까지 서울 중심으로만 이뤄지던 만화, 웹툰 사업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취지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 ■
대표는 무슨 기준으로 선출된 거죠?

- 외모? 외모와 능력이죠. 농담이고 선거가 이루어져서 당선이 된 거죠.

■ ■
부산 웹툰페스티벌은 언제 어디서 열렸나요?

- 작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센텀시티에 있는 부산글로벌웹툰센터에서 있었죠. 첫 회였어요. 작가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다 보니, 전시 쪽은 비전문가들이니까 이런 저런 실수도 많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2회 때부터 저는 좀 빠질려고요.(웃음)

부산웹툰페스티벌이 첫 회인 만큼 어쩌면 시민들에게도 생소했을 텐데 자체 평가를 해 본다면?

- 작년에 제가 온 좋게 프랑스 앙굴렘 만화축제에 참석하게 되면서 40년이 넘는 권위 있는 만화행사를 눈으로 직접 보고 올 수 있었던 게 제일 컸죠. 앙굴렘은 프랑스의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축제기간에는 온 동네가 전시관 이에요. 전 세계의 만화가들이 거기 다 모이는 거죠. 글로벌웹툰센터 자체를 축제가 열리는 동네처럼 만들어보자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회, 3회 계속 이어진다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겁니다.

웹툰이 과연 어떻게 전시될까 궁금했는데 어떤 컨셉이나 차별화가 있었나요?

- 전시라는 건 원래 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웹툰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스토리텔링이었어요. 섹션별로 보면 제일 처음엔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그림이 있어요. 만화가를 꿈꾸는 소년이지요. 그러다가 만화가를 만나게 되고, 꿈을 키우다 좌절도 하게 되고, 좌절만화 코너도 있거든요. 동아리 생활도 하게 되죠. 그리고 만화학과도 갔다가 그렇게 만화가가 되어 가는데 출판만화에서 웹툰이 등장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20세기의 만화소년이 21세기의 웹툰소년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이 전시에 담았습니다. 말하고 보니 되게 거창하네요.

부산웹툰페스티벌이 열린 부산글로벌웹툰센터도 최근에 개관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 부산경남만화가연대가 예전부터 부산시에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는데, 별 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웹툰 자체가 인지도가 낮았고, 그러다 윤태호 선생님의 미생이 뜨면서 시선이 달라졌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웹툰을 관심 있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동안에 부산작가들의 작품이 줄줄이 영화화되고, 웹툰의 위상이 달라지니까 웹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부산글로벌웹툰센터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영화 '쇼생크탈출'에서 주인공 앤디가 교도소에 도서관을 마련해달라고 편지를 쓰잖아요. 처음엔 책 몇 권을 보내주는데 매일 같이 하루에 한 두통씩 꾸준히 편지를 보내다 보니 도서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과정이었어요. 저희도 초지일관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끈질기게 해왔죠.

새해도 밝았는데 요즘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지금은 행사들은 다 끝내고 본업인 만화연재를 준비하고 있죠.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마 4월 쯤 연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 연재될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프로야구 선수를 다루게 될 거구요. '내 어깨보다 높이'란 제목입니다. 주인공은 예전 이진주 선생님의 '달려라 하니'에서 하니의 라이벌이었던 나애리 선수를 모티브로 '나엘'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키도 180이 넘고 피지컬이 좋은 여성 선수죠. 선수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로맨스도 있고요. 리얼리티와 만화적인 과장이 적절히 섞인 작품입니다.

스포츠와 로맨스 중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큰가요?

- 원래 계획했던 원안에서는 5대 5의 비중이었는데 오영석 작가가 스토리를 맡으면서 로맨스 7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연애를 해야... (웃음)

어쩌다가 처음 만화를 그리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달력 뒤 쪽에다 그림을 그리고 놀았는데 컷을 나누고 말풍선을 그리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터였어요. 학교에 만화부가 있었거든요. 미술부가 아니라 만화부를 선택하면서부터였죠. 만화가 너무 재밌어서 고2 때부터 문하생으로 들어갔죠. 정기철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성인만화를 그리고 계세요. 살색만화의 달인이시죠.

배민기작가도 성인만화를 그렸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작품이죠?

- 그건 실명을 걸지는 않고 GD라는 필명으로 그렸는데 지 드래곤이 아니라 그레이트 드로잉의 약자니까 오해 마세요. '키 메이커'라는 작품이죠. 한 때 말이 많았던 픽업 아티스트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여자를 유혹하는 전문가들이죠. 주인공이 어떤 방식으로 여성을 유혹하는지를 그린 만화였어요.





취재를 위해 실제로 픽업아티스트들을 만나기도 했나요?

- 실제로 만나진 못했고 그들의 비법을 소개한 책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했죠. 당시 어시스트가 여성이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연재 당시엔 꽤 인기가 있었죠. 마치 게임에서 퀘스트를 하나씩 완료하는 것처럼 여성을 유혹하는 그런 만화였죠.



아무래도 웹툰작가들은 서울 쪽에 많이 모여 있죠?

- 그렇죠. 서울, 부천, 일산 등에 많이 모여 있는 편이죠. 그래도 한강 이남으로는 부산에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다.



부산 만화작가들의 작품은 어떤 지역 색이랄까 그런 특색이 있다고 보나요?

- 재밌는 게 부산 쪽 작가들은 바다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 광안리나 해운대를 그릴 때 그게 마치 휴양지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저 우리가 사는 곳으로 표현하죠. 간혹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보통 바다에서 항상 등장하는 갈매기를 그리는 일이 잘 없죠. 근데 다른 지역 작가들이 바다를 표현할 땐 항상 여정의 끝이라든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항상 갈매기가 등장하고.. 로맨틱하거나 환상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만화를 작업하는 환경은 수도권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 수도권에서 작업해 본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부산으로 내려온 작가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부산의 작가들은 오랫동안 선후배로 지내와서인지 끈끈한 정 같은 게 있다고 해요. 서로의 작품에 대해 모니터도 세심하게 해주는 편이고 자기 작품처럼 아이디어도 같이 고민해주기도 하고 그런다더군요. 서울 쪽에선 만나도 주로 근황이나 일상에 대한 얘기고 작품에 대해선 서로 잘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더군요.



배민기 만화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남들이 잘 쓰지 않는 앵글을 쓴다든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담을 수 없는 만화에서만 연출이 가능한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연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만화적이다. 그런 평을 들은 적이 좀 있었어요. 의도가 먹힌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요.



요즘에는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는 편인데 그런 경향이 웹툰 스토리에 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편인가요?

- 분명히 있죠. 드라마 영화화를 염두에 둔 작품들은 1화만 봐도 확실히 티가 나요. 그게 장단점이 있겠죠. 웹툰이 1차 소스로서 가치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만화로서의 매력은 좀 잃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영화화를 염두에 둔 작품들은 감독들이 스토리보드가 따로 필요 없어요. 웹툰 자체가 스토리보드이기 때문에 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수영아류에 관한 만화도 그렸는데 어떤 작품이었나요?

- 김유리 작가와 함께 작업했는데 부산의 무형문화재 수영아류를 한 번 탈바꿈 시켜보자고 진행한 프로젝트였는데 처음엔 수영아류보존회 분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보존회라는 단체의 목적이 수영아류를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인데 그걸 탈바꿈하려는 시도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김유리 작가가 스토리를 워낙 잘 쓰기도 했고 나중엔 많이 이해해주셔서 재밌는 작품이 된 것 같아요.



영도 갯강이 마을에 관한 만화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최근 작업들을 보면 지역문화를 홍보하는데 앞장서는 만화가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주력하는 느낌이에요.

- 아마 연재가 있었다면 못했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연재를 쉬고 있던 중이라.. 부산의 밴드 스카웨이커스와 함께 영도 갯강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같이 콜라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받았어요. 여러 번 회의 끝에 각자 결이 좀 다른 작품이 나오긴 했죠. 갯강이 마을이라는 이름이 조선소에서 망치질 할 때 나는 '갯강' 소리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젠 이런 작은 영세 조선소에는 의뢰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주민 분들의 얘기를 듣고 소리를 잡아먹는 괴물이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소리를 잡아먹는 괴물이란 어쩌면 거대 자본주의일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결국 슈퍼히어로나 다른 누구의 힘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나서 갯강 소리를 내며 괴물을 물리친다는 단편만화입니다. 제목이 '갯강시티'거든요. 갯강이 마을 책자에도 실려 있지만, 갯강이 마을에 가시면 전봇대 스무 개에 연결되어서 폴 아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봇대 만화로 만나는 재미도 쏠쏠할 거예요.



이후에 꼭 도전해보고 싶은 소재나 올해 목표가 있는지?

- 모든 작가들이 몇 개쯤은 다 품고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귀신들을 찾아서 귀신지도를 그리는 사람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요. 못 다한 사극에 대한 미련도 있고. 그런데 귀신을 무서워하는 편이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야구팬인데요. 이번에 연재하는 만화가 잘 돼서 사직구장에서 시구를 하는 게 목표라기 보단 꿈이죠.

“ 자기만의 색깔을 갖춘 부산시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예술가 인터뷰 · 부산시립교향악단 최수열 상임지휘자

글_ 동길산(시인·본지 편집위원)

날짜_ 2017. 12. 14. 목요일

장소_ 부산문화회관 부산시향 지휘자 집무실



● 최수열 상임지휘자

부산시향에 혼기가 넘친다. 온화하면서 따스한 기운이 시향을 감싼다. 온화하면서 따스한 기운은 화음으로 이어진다. 화음은 소리와 소리의 화합이지만 마음과 마음의 화합이기도 하다. 마음과 마음의 화합은 새로 온 상임지휘자의 지휘 철학이기도 하다. 지휘자가 강요해서 내는 소리와 연주자가 마음을 열어서 내는 소리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철학이다.

새로 온 상임지휘자는 최수열. 지난 9월부터 부산시향 지휘봉을 잡았다. 리 신차오가 물러난 이래 1년 8개월 공석이던 자리가 비로소 주인을 만났다. 최수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음악계에선 상당히 알려진 이름이다. 부산시향 상임이 되기 직전 서울시향 부지휘자를 맡았다. 사람을 신중하게 선정한다는 정명훈 상임지휘자가 부지휘자를 3년간 맡길 정도였으니 무슨 말이 필요할까.

부산문화회관 부산시향 지휘자 집무실에서 최수열 상임을 만났다. 부산시향 가장 큰 공연의 하나인 송년음악회를 앞둔 때라 잠시 쉬는 10분도 아쉬웠지만 <공감, 그리고> 독자를 위해 흔쾌히 시간을 내었다. 1979년생이니 마흔을 앞둔 나이. 온화하고 따스했다. 그러면서 강단졌다. '제대로 된 음악, 부산시향을 세계가 주목하는 악단' 같은 대목은 한 마디 한 마디 힘을 주었다. 그게 가능할까 싶다가도 그게 가능하겠구나. 고개를 끄덕인 인터뷰였다. 인터뷰는 12월 14일 오전에 이뤄졌다.

동길산

마흔을 앞둔 나이다. 젊은 편이다. 음악계에선 '마흔을 앞둔 나이'를 어떻게 보는가?

최수열

지휘자는 악단을 이끄는 리더지만 연주자보다 높은 계급이 아니다. 상하구조가 아니라 수평구조에서 지휘자를 보고,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지휘자를 본다면 나이는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젊다는 게 강점일 수도 있다. 세계에 나가보면 20대 지휘자나 음악 감독이 수도룩하다.

동길산

지난 9월 취임 연주회 '유쾌한 시작'을 열었다. 연주회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진심을 다해 단원들과 소통할 것이다'고 했다. '진심'이 무슨 뜻인가?

최수열

지휘도 연주의 하나다. 다만, 연주하는 악기가 오케스트라라는 큰 조직이다. 보통의 악기는 사물이지만 오케스트라라는 악기는 사람으로 이뤄진다. 그러므로 지휘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원하는 소리를 얻을 수 있다. 연주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 마음을 다해서 다가가겠다는 뜻이다.

동길산

연주자의 개성을 배려하면서 오케스트라 전체 조화를 이끌어 지휘자가 원하는 소리를 얻는다는 말이지 싶다. 개성과 조화는 상충하는 개념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다.

최수열

연주자는 연주자의 개성이 있다. 개성의 결집이 곧 악단의 스타일이다. 반면에 지휘자는 지휘자의 스타일이 있다. 상반된 두 가치, 악단의 스타일과 지휘자의 스타일을 계속 조율하면서 원하는 소리를 얻는 게 지휘자의 능력이다. 어떤 틀을 정해 놓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고집하진 않는다. 연주곡 해석 권한은 지휘자에게 있어 나름대로 방향은 있지만 악단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되면 그걸 받아들이는 편이다.

동길산

겸손의 말씀이다. 지휘는 언제부터 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입문했나?

최수열

늦게 시작했다. 고1 때 음악을 전공하기로 마음먹고 작곡을 공부했다. 아버지가 작곡가다. 집에 있는 CD를 닦치는 대로 들었다. 그런데 작곡은 성향이 맞지 않았다. 작곡은 한 자리 녹진하게 앉아서 이뤄지는 창조예술인데 나와는 맞지 않았다. 고3 때 지휘로 돌아섰다. 지휘자의 동작에 매력을 느껴서 그런 건 아니고 자연스레 그리웠다. 한국에 지휘과는 1993년 처음 생겼다. 그전에는 작곡하다가, 또는 연주하다가 지휘자로 변신했다. 외국에서 지휘를 배워 들어오기도 했다. 나는 정식으로 지휘를 전공한 첫 세대에 속한다.

동길산

지휘봉을 잡고 무대에 오르면 외롭진 않은가? 그리고, 지휘자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최수열

하는 일이고 익숙해져서 외롭진 않다. 같이 고생한 단원들에게서 박수 받을 때 보람을 느낀다. 단원은 발을 구르거나 하는 방식으로 박수를 보내는데 같이 고생한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박수라서 뜨겁게 다가온다.

이쯤에서 최수열 상임의 학력이며 경력을 소개해야겠다. 풀 게 많아 한 보따리지만 굵다란 것만 쏙.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현대음악 단체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앙상블 모데른 아카데미 지휘, 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부처필하모닉 오케스트라·수원시립교향악단·KBS교향악단 객원 지휘,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오케스트라·국제 앙상블 모데른 아카데미 지휘자,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 밖에 포브스코리아 '2030 파워리더 30인'과 월간 객석 '차세대를 이끌 젊은 예술가 10인'에 선정됐다. 지휘자로는 처음이었다. 포브스(Forbes)는 백만장자 명단 발표로 유명한 미국 잡지다.

동길산

서울시향 부지휘자로 있으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어떤 내용이며 부산시향에는 어떻게 접목할 방침인가.

최수열

내가 기획한 몇몇 음악회가 서울시향 브랜드로 뿌리내리면서 과분한 수식어가 붙은 것 같다. 찾아가는 음악회 일종인데 예를 들면 리허설룸 콘서트, 음악극장, 창고음악회 같은 것이다. 창고음악회는 의외의 성과를 거뒀다. 창고의 특성상 공간이 넓고 높아 여느 공연장보다 소리가 좋았다. 부산은 해수욕장이나 부두, 창고, 근대건축물 같은 보배 같은 지역이나 공간이 많다. 부산문화회관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시민을 찾아, 그리고 삶에 지친 이를 찾아 음악회를 열겠다. 장애아동과 취약계층을 배려한 음악회도 염두에 둔다.

동길산

기대가 크다. 부산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음악회도 궁금하다.

최수열

찾아가는 음악회는 한계가 있다. 장소 제약이 있으므로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움직이기 어렵다. 제대로 된 음악을 들으려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니라 찾아오는 음악회가 돼야 한다. 누구에게는 생애 첫 음악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부산시향을 제대로 알리는 제대로 된 음악으로 부산시민을 맞으려고 한다.

동길산

연주회 곡목은 지휘자가 선정하는 것으로 안다. 9월 취임 연주회와 11월 부산시향 정기연주회 모두에 이름을 올린 음악가가 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다. 취임 첫 두 연주회라 고심해서 선정했을 텐데 부산시향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어떤 의미인가?

자기만의 색깔을 갖춘
부산시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최수열

슈트라우스는 말려보다 덜 알려졌지만 더 알려져야 할 작곡가다. 슈트라우스 곡은 부산사람 성향과도 잘 맞다. 직설적이고 선이 굵다. 3년 임기 안에 슈트라우스 전곡을 연주해 부산시향 대표 브랜드로 삼을 계획이다. 한국에선 슈트라우스 전곡을 연주한 악단이 아직 없다. 세계에서 드물다. 어렵고 방대해서다. 전곡을 연주한다면 전 세계에서 수준급 악단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이야기다. 부산시향은 박승, 리신차오 등 전임 지휘자 시절 슈트라우스를 공연한 적이 있다. 세계적 악단으로 도약할 수준은 이미 갖췄다고 본다.

동길산

부산 음악계에 어떤 지휘자로 기억되고 싶나?

최수열

시작은 늘 좋기 마련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지휘자로 남고 싶다. 개인의 명예보다는 시향 전체의 명예에 기여한 지휘자로 기억되고 싶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같은 자기만의 색깔을 갖춘 부산시향, 부산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부산시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R. 슈트라우스(1864~1949)는 누군가, 문외한에게 낯선 음악가지만 독일에선 전설이다. 독일 후기 낭만파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교향시와 오페라에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돈 후안' 등과 오페라 '살로메', '장미의 기사' 등을 남겼다. '살로메'를 기점으로 슈트라우스는 교향시 작곡가에서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을 다졌다. 구스타프 말러(1860~1911)와 동시대 작곡가다.

"좋은 소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음악의 본질인데 그걸 잊고 살아왔던 것 같다.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기획한 음악회인데 오히려 연주자들이 힐링을 받은 시간이었다." 지난 11월 10일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열린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음악회 지휘를 마치고 최수열 지휘자가 남긴 말이다. 음악의 본질은 좋은 소리, 그리고 공감이다. 음악의 본질을 되새기는 최수열 상임지휘자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그가 가진 온화하고 따스한 기운이 부산시향을 감싸고 부산을 감싸길 기대한다.



유휴학교는 우리 마을 실험실로 바꾸자



글_ 홍순연((사)삼진이음 이사, 동서대, 동아대 출강 중)



집집마다 신학기준비는 1,2월부터 시작된다. 특히 새로 입학하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어떤 학교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어떤 친구가 짝꿍이 될지 등 온 가족이 함께 기대하고 긴장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 학교는 크고 넓었으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삭막한 복도는 친구들 간의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장소였다. 그 공간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소소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지금도 여전히 학교는 학생이나,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비롯한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건축적 매개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얼마 전 영도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무심코 읽은 문자는 “영도에 〇〇초 입학생 5명”이었다. 사실 ‘그게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에 아이들이 준다는 것은, 그동안 산골 어느 시골분교만의 모습일 것이라 생각한 것이 이제는 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 다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급하게 인터넷을 뒤져 찾아보니 ‘전국 시도 유휴교실 현황’(7월 기준)에 따르면 초·중·고교 빈 교실은 6,162개라고 한다. 서울, 광주, 부산의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들은 이미 통폐합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이 사라진다는 것이며,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들은 시골학교처럼 스쿨버스로 1시간 남짓 시간을 들여야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듯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는 지역의 중심역할을 했고 학교 교장선생님은 지역의 유지로 활동하는 분이셨다. 그런 학교가 사라진다면 지역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학교는 단순히 배우는 장소보다 공간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활을 담고 있는 곳이므로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걸쳐 교감되어온 장소였다. 곧 학교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사회의 모습을 담고 그리는 곳이므로 어떠한 공간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면서 점점 도심 속에서 사라져가는 학교, 이 학교공간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 10년 전 유학 간 친구를 따라 영국과 프랑스에서 몇 달을 머물면서 그들의 삶을 잠시 체험한 적이 있었다. 그중 가장 부러웠던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었다. 친구는 바이올린을 배우기 위해 한국 돈으로 20만원을 지불하고 지역의 유명한 교수에게 교습을 받으려 지역의 학교에 찾아가는 것을 보았다. 학교가 폐쇄적이지 않고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형되어 활용되고 있는 모습은 학생인 나에게도 신선하게 다가왔다. 당시 우리나라 학교들은 공영주차장시설과 학교건축을 계획하는 등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한 계획이 일반적이었지만 다른 나라의 학교들은 공연장, 체육관, 실습실 등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공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구심점이 학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영도에 1년 남짓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사업 중 하나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형성하는 사업들이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니었다. 특히 쏟아져 나오는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실현화 할 것인가와 세대별 주민들의 의견은 너무나 다양하니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다. 그 중 영도는 학부모와 함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 정보 또한 공유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부모를 타깃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았더니 그 호응은 너무나 뜨거웠다. 향후 인터넷에 밴드를 만들었고,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된다는 말에 학부모들은 본인의 참여를 마다하지 않았다. 직장맘, 전업주부 할 것 없이 아이들과 연관된 프로그램이다 보니 당연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영도지역은 학생과 학부모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커뮤니티를 만들려고 노력중인데, 얼마 전 방문한 서구의 도시재생 워크숍에 참여해보니 이곳은 세대 간의 요구사항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10대의 청소년들은 인문학 서점과 인문학강좌가 열리는 장소가 필요하고, 어르신들은 공동밥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외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지만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너무나 협소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에 더욱 물리적 활용도가 높은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싶다. 사실 이러한 구상은 리빙랩(Living Lab)이라는 단어로 이미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리빙랩이란 '일상생활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사용자 주도형 혁신 플랫폼으로 과학, 사회, 현장의 통합모델을 시도하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교육 분야 서비스 혁신을 슬로건으로 Espoo지역에서 시작하여 학교 교육혁신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의 퓨처센터는 사회적 지식생태 조성을 위한 공간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

며 지역의 기업, 정부,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수행하고 있다. 즉, 교육과 지역이 함께 고민을 해결하는 창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유수의 대학은 이러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까운 일본의 요코하마시립대학은 시설개방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초·중·고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선을 끄는 것은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강좌로서 영감을 얻는 실례는 과학이라는 주제로 최첨단 과학연구 체험, 초·중학생을 위한 의사직업체험인 블랙잭 세미나, 심폐소생술 등 의학기술을 배우는 시뮬레이션센터의 학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유휴학교는 각자의 생활 테마형 교육기관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지역 공감형 리빙랩인 '우리 마을 실험실'로 학교를 만들었으면 한다. 최근 평생교육이라는 타이틀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커뮤니티 사업을 다시 세대별로 나누어 학교라는 공간에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우리 마을 실험실에서는 모든 것들이 통용되는 실험실로 거듭났으면 한다. 나아가 엄마들의 사랑방, 아이들의 경제커뮤니티학교, 공동육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그러려면 학교의 공간구조도 바뀌었으면 한다. 일부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실은 유지해야 하지만 남아도는 교실은 우선 칸칸이 정형화된 특징을 활용하여 가변성이 강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총별로 된 교실은 복층으로 변형을 시키고, 각각의 영역별로 변형이 가능한 실험실이 만들어 졌으면 한다.

때로는 요리강습이, 때로는 할머니들의 공동밥상으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복층형으로 된 여러 가지 생활 실험실들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을 듯하다. 때로는 지역사회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작은 연구소들은 실패해도 문제가 안 되는 실험실이 되었으면 한다. 발상과 아이디어로 뚝뚝 뭉친 아이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듯하다. 여기엔 원로 연구자들이 함께하여 세대 간의 지식적 고민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학교는 지역의 아카이브로서 손색이 없다. 지역에 50년 이상 된 학교는 곧 지역의 역사이므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기록들은 바로 지역의 자료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도서관으로 누구나 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함께 만들어졌으면 한다. 학교는 여전히 우리에게 추억이고 아이들에게는 꿈이 모여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 공간이 새로운 도약을 한다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생각의 공간이 더해진다면 아마도 도시에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학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진화를 맞이한 듯하다. 이제 유휴학교는 위축된 사회문제를 담고 있는 공간이 아닌 활력 있는 공간으로 변화 될 가능성이 시작된 듯하다.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는 성장드라마 이다

글. 모상미(모이다아트협동조합이사장 · 문화예술기획자 및 예술강사 · 금속, 한지공예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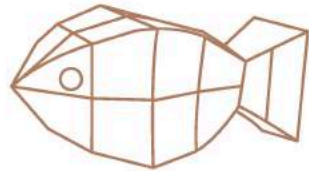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시작한지도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공예를 하는 작가님들과 단순체험교육이 아닌 이야기와 의미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사이클링을 통한 재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수업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심의하시는 분께서는 쓰레기로 재료를 쓰는데 재료비가 왜 드냐는 말에 울컥하였지만 강사 여덟 분이 각자의 재료를 가져와 참여자들과 각자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1기~4기까지는 공예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세대 간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손가족과 함께하는 뮤지컬인형극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장르와 하다 보니 처음에는 불협화음도 있었고 소통하는 부분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있었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니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막상 공연을 할 때는 뮤지컬강사 분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집에서 안 입는 추억이 담긴 옷가지와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손 인형을 만들고 무대를 만들어 공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공연을 하고 소감을 발표하는데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가족들과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공연도 하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활동했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시며 손을 잡아주셨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인형극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도 강사들도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쯤 회의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 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서울에 꿈다락 워크숍을 참여하면서 다른 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도 즐겁고 참여자도 즐거운 놀이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는 의미로 요리를 테마로 미술과 연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야외학습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즐거워 하셨으나 요리가 저희의 주장르가 아니다 보니 재료의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겉도는 양상을 보이게 되어 강사들 자신들이 판단할 때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음악과 공예가 콜라보 된 형식으로 악기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료의 소리를 찾아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2년간 해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다듬어 나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6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다양한 성격의 참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발표를 할 때 자기 이름 석 자도 말하지 못하고 꾸뻑꾸뻑 엄마 뒤에 서서 있던 아이가 15차시가 지난 후 발표도 하고 지금은 중학생이 되어 기상캐스터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어느새 사회인이 되어 원래 전공은 전자기계 쪽인데 시각디자인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여 부산광역시 자원순환의 날 DIY 부문 대상을 받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보조강사로 활동하면서 보람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게 된 것 같아 행복하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을 다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는 없지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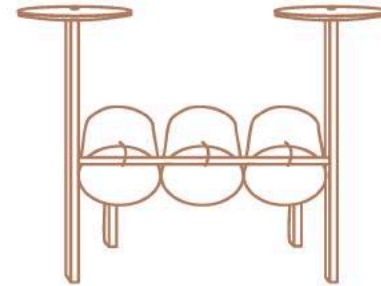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기다림과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 학교 밖으로 나와 이렇게 문화예술교육을 하는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 행동할 수 있는 시간, 그 안에서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이 쌓이고 삶의 지혜가 깊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모범생이 아닌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양성을 찾고 관계 맺기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하여 부모님들도 함께 배우고 실수하고, 함께 느끼다보니 그 안에서 소통하고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시키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보고 기다려 주는 예술의 장 그것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인 것 같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주말도 없이 6년간 해오는 게 힘들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합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건 불금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냄새가 난다고 한 후로 금요일 전날은 금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고요, 수업을 할 때는 설렘니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그 순간순간들이 행복합니다. 그들의 고민 또한 작은 사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라서 어른들이 겪는 고민들과 거의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는 대상이 가족과 초등학생이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위기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으니, 결국 문제들은 어린 시절부터 오는 상처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예술을 좋아하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예술을 즐겁게 경험하고 의미 있는 순간, 순간의 기억들로 차곡차곡 채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 늘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모이다아트협동조합에서 준비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설렘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고 할 수 있는 열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능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궁금증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간혹 팁을 주는 역할을 하는 길잡이와 같은 사람이란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느낍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부모님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학부모님도 일원이라고, 아이들에게 못한다고 야단치거나 강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요. 처음에는 잘 지켜지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 규칙을 만들고 서로 배려하고 진행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강요하지 않아도 점차 지켜지더라고요.

이번 2017년 동동동~ 소리를 찾아서 떠나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했던 것은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가 행복하고 집중하는 수업들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는 순간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초여름 아름다운 광안대교가 보이는 교실에서 문득 옆을 돌아보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바다

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말을 듣고 다음시간에 물총 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는 아이들과 함께 우비를 입고 물총을 들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의 미소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 주는 마법 같은 일상 속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자 모두 집중하는 시간이, 드럼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조를 이루어 게임으로 획득한 재료를 이용하여 설계도를 만들고 약기이름을 짓고 만들 때 다들 집중력이 너무 높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다 행복하고 에너지가 높으면 좋지만 수업에 높낮이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럼을 만드는 시간은 진행하는 강사도 참여자도 모두 힘든 수업이지만 모두에게 성취감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재료들이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에, 아이디어와 미술적 요소를 가미하여 만들고 자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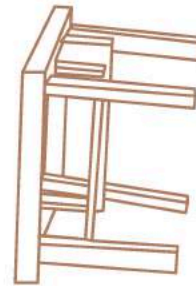


만든 악기로 연주까지 하다 보니 느끼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학생 중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고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으로 음악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자기가 만든 악기로 발표회를 위해, 연습을 매일매일 열심히 했다면서 발표회가 끝나고 감사하다고 다음에 꼭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 가장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기획자, 강사, 참여자 누구 한사람이 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닌 생각이 듭니다. 강사들끼리는 호흡이 잘 맞아야 하고 기획자는 제반 서류며 홍보를 잘해야 하고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애착을 가지고 참여해야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을 하지만 이 삼박자가 어긋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만족도가 낮을 것 같습니다.

요즘 모든 트렌드가 문화예술인가 봅니다. 문화예술

교육 또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인성, 창의성, 표현력, 사회성, 자존감 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술적 경험의 과정 속에서 예술적인 부분에서 개인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신에 대하여 알아가고 타인과의 소통 방법들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세대 간의 소통, 지역공동체 회복, 도시재생, 문화다양성, 사회취약계층, 노인문제, 다문화 등 지역의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문화예술강사 뿐만 아니라 전시기획, 마을활동가, 도시재생 마을가꾸기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을 진행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늘 내



안에 예술적인 감성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그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네트워크 교육에서 만난 커뮤니티아트 '숲' 탁경아 선생님과 세상과 소통하기 양근숙 선생님의 만남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많은 고민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이야기하며 '아고라'라는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각자의 단체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연구모임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모이다아트협동조합은 손으로 만들고 진행하고 협업하는 것은 잘하는데 스토리텔링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모임을 통하여 피드백을 받고 수업에 적용하면서 한층 프로그램이 단단해 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역에 관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부산문화재단에서 자

율연구모임 지원비를 받아 두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여 '안희제 - 백산무역에서 대한독립을 꿈꾸다'를 진행하고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2017년, 2단계로 세 단체가 뭉쳐서 '백산 따라잡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보여주는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을 하는 모든 예술가들의 모습으로 보여 질 수도 있기에 늘 마음속에 예술의 감성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과 예술가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야의 가치를 위해 연구하고 쌓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새로운 2018년의 모험과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며 하루, 하루를 보냅니다.

문화 돌보기

I

46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등재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장제국

50

부산의 문화유산 [좌담]

II

56

발간물로 보는 부산문화재단 10년 장덕현

46



46



46



46



50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등재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 장제국(동서대학교 총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한일포럼 운영위원)

지난 해 부산의 11월은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등재를 기념하는 세미나,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로 가득했다. 한국과 일본의 많은 민간단체들도 참여하여 그야말로 한바탕 축제와도 같은 기간을 보냈다. 특히, 2017년은 한일국교정상화 52주년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배경의 하나인 정유재란이 일어난 지 600주년이 되는 해였기에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가 더 크게 느껴졌다.

이번 등재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이 뜻을 모아 지난 5년간 준비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그동안 한국 측의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과 일본 측의 '조선통신사 연지연락협의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와 실행위원회, 그리고 학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협의를 거듭하며 공동등재를 위해 힘을 쏟아왔다. 각 위원회 실무진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선통신사에 대한 연구와 문화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며 곳곳에 산재된 수많은 자료들을 집대성해주신 많은 뜻있는 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조선통신사)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조선통신사는 1607년에서 1811년까지 약 200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일본을 오가며 한일친선을 도모했던 조선의 사절단이었다. 사실 조선이 일본 막부에 통신사를 외교사절로 보낸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1413년부터였다. 그러나 한일 양국 민간단체는 임진왜란(정유재란 기간을 포함) 이후 파송이 재개된 조선통신사가 양국의 갈등을 딛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1607년부터 1811년까지의 사행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그 당시 조선통신사 사행길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통신사 행렬은 한양에서 육로로 출발하여 부산에서 쓰시마까지 해로를 이용했고, 시모노세키와 오사카를 거쳐 교토에 이르렀고, 조선 후기에는 막부가 있는 도쿄까지 다녀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양을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대장정이었다. 통신사 행렬은 400~500명으로 출발했지만, 쓰시마에서 현지 수행원들이 합류하여 통상 2,000여 명에 달했다. 일본 현지인들은 '섬이 가라앉을 정도'로 성대하게 통신사 행렬을 맞이했는데, 통신사의 한 차례 일본 왕래 비용은 막부 1년 예산과 맞먹었다고 한다.



당시 쇄국정책을 펴던 에도막부서를 교환하며 선린우호 관계를 어온 유일한 나라가 조선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일본이 조선통신사 행렬을 환대한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조선통신사는 당시 일본으로서는 드물게 이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창구였던 것이다. 조선통신사가 머물던 숙소에는 문인, 화가, 승려들의 교류가

끊이지 않았고, 조선통신사가 다녀가면 일본 내에 조선의 사상과 문화의 붐이 일어나고 유행의 흐름이 바뀔 정도였다니 지금 표현으로 하면 가히 한류의 원조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조선통신사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매우 귀중한 자원이 유입되었다. 바로 고구마이다. 제 11차 사행의 대표인 정사(正使)로 낙점된 조엄(趙瞻)은 1763년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처음 보고 이를 국내에 들여와 구황작물로 활용하고자 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부산 영도에서 대량 재배를 성공시키게 된 것이다. 이처럼 조선통신사는 한일 양국의 오랜 역사에 부정의 기억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오랜 긍정의 기억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등재과정)

오래 전부터 한일 양국의 지방 도시들은 오랜 '긍정의 기억'인 조선통신사 행렬 복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일본의 경우 조선통신사가 거쳐 간 지역을 '연지(緣地)'라고 명명하고, 이들 연지의 행정기관들이 모여 '연지연락협의회(緣地連)'라는 조직을 설립하였다. 당초 조선통신사 행렬의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연지연과 뜻을 함께 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조선통신사 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고 조선통신사 행렬 복원사업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 매년 여름 부산을 출발해 쓰시마를 거쳐 시모노세키까지의 조선통신사 행렬은 부산과 일본 연고지의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된 것이다.

이후 부산문화재단이 2012년 5월 일본 측에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추진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한일 민간이 의기투합하게 되었다. 당시 한일관계가 경직되면서 당초 정부차원에서의 추진이 무산되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민간인들이 뜻을 모아 한일 민간이 주축이 되는 공동등재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014년 6월, 한국 측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당시 부산문화재단의 요청으로 필자는 공동추진위원장 겸 실행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오랫동안 조선통신사를 연구해 오신 강남주 전 부경대 총장이 학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이후 한일 양국에서 개최된 실행위원회와 합동 학술회의 등을 거쳐 총 111건 333점(한국측 63건 124점, 일본측 48건 209점)의 등재신청 목록이 만들어졌고, 2016년 3월말 유네스코에 정식 등재신청을 하였다. 2016년 11월에는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파리로 건너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한일공동 홍보활동을 하고 유네스코 담당자들과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7년 10월 31일, 마침내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등재 최종 확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의의와 과제)

이번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등재 사업을 통해 한일관계가 정치, 경제와 같은 중양의 큰 담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바로 지방과 풀뿌리 차원에서 양국관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번 등재사업은 철저하게 민간주도로 진행되어 왔다는 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일 양국이 역사문제로 여전히 갈등하고 있지만, 양국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의기투합을 통해 조선통신사와 같은 보기 드문 '긍정의 기억'이 지속적으로 발굴된다면 분명 보다 건전한 양국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등재사업이 한국과 일본의 지방도시가 주축이 된 '지방발'이라는 점에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과다한 중앙중심적 국가에서 양국의 지방도시가 뜻을 모아 사업을 주도했다는 점이 평가받을 만 한 것이다. 특히,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방주도의 사업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멀티채널로써 더욱 많이 시도되고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서 조선통신사의 정신을 더욱 널리 알려나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우리 선조들이 과거 약 200년 동안 무엇을 위해 한일을 오갔는지 생각해보고, 이와 같은 긍정의 기억을 양국 관계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 기본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사인식에 기인한 배상문제, 영토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의 중대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통해 배움을 얻고 이를 미래지향적인 관계정립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되풀이 되어 온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조선통신사 파견을 통하여 전쟁을 평화로, 갈등을 소통과 공존으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보여주었다. 지금 한일관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정성과 신의, 즉 조선통신사의 기본 정신인 '성신교린(誠信交隣)'인 것이다.



부산의 문화유산 좌담회

참여자 _ 나동욱(부산박물관 문화재조사팀장)

박창희(전 국제신문 대기자)

이용득(부산세관박물관장)

차윤정(사회,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장 소 2018. 2. 9. 금요일 4시

부산대학교 공동연구소동 531호

사회자(차윤정)



사회자(차윤정)

안녕하십니까?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차윤정입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부산의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 그리고 계승 방안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각자 활동하시는 분야와 함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용득

저는 세관 근무를 하면서 세관 역사 속에서 부산의 향토사와 해운 항만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고, 그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을 해양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향토사학자 겸 항만학자입니다.

박창희

작년에 정년퇴직한 후, 지금 스토리랩 '수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자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자산들의 스토리를 찾아 콘텐츠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엄청난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동욱



나동욱

저는 부산박물관 학예관으로서 문화재조사팀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소장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저는 오늘 부산의 문화재 찾기, 찾아내서 알리기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네, 해양도시인 부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 문화유산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런 문화유산에 대해 특별히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용득

부산은 역사적 정체성의 측면에서 보면 변방의 역사와 관문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대해서는 변방이지만 바다를 통한 관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겨진 유물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있다는 점을 알고 다 포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박창희



박창희

사실 변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중앙에서 떨어진 외곽, 시골, 마이너리티 관점에서 변방을 이야기할 수 있고, 신영복님의 '변방의 중심성'처럼 창조성이나 새로움의 출발지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산은 '창조 공간으로서의 역사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부산은 기획이 안 되고 있고, 문화기획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원형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를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중간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획이 제대로 안 되니까 스토리텔링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 문화유산, 근대 문화유산, 현대 문화유산, 미래 문화유산, 그리고 정신 문화유산까지 기본적으로 부산시를 중심으로 '부산 문화유산 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자

많은 부산의 문화유산 중, 최근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하여 피난수도라 조선통신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득





이용득

조선통신사를 생각하면 '옛길'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한양에서 출발해서 걸어왔을 텐데, 그렇다면 '영남대로'가 중요해집니다. 역사성이 없는 '갈매길'보다, 역사성을 담고 있는 '영남대로'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부산으로 오는 길목마다의 스토리들, 특히 황산도 길목은 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짚어야만 조선통신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부산문화재단에서 잡아줘야 되죠.

나동욱

그런 면에서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많이 열었습니다. 영남대로, 부산시 약진 50년, 초량왜관 학술총서, 임진왜란, 통신사, 한·일 외교 등 박물관에서 다 짚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이것들이 아카이브화 되어 언제든지 재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의 거점들을 특화하고 이 거점들을 잘 연결해준다면, 점들이 선이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문화 릴레이, 문화 기동을 새로 만들게 되는 거죠. 기획을 통해서 힘을 주고 지원해 주는 문화행정이 절실합니다.

이용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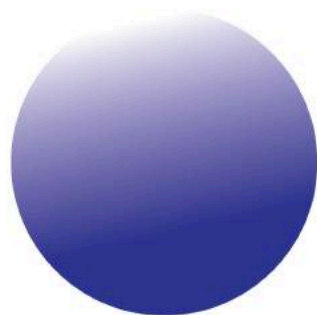
기획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간매개가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죠.

나동욱

'초량왜관'을 연구해 보니, '동래부사접왜사도'를 통한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사신이 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원가를 협의하러 오고 물건을 가져오고, 그들을 어떻게 접대했는가 다 기록에 남아 있고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없어지는 것을 보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존하는 것이 당장은 활용이 안 되지만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박창희

조선통신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자료 찾기와 축제만 있다고 봅니다. 진짜 새로운 콘텐츠와 접목시켜 역동성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동래부사접왜사도'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걸 18·19세기 때의 동래부 풍속도거든요. 그걸 재현해 내는 것, 콘텐츠 문화원형으로서는 최고죠. 또 조선통신사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왜관'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조선통신사, 왜관과 관련된 문학 작품들이 더러 나왔습니다. 조선통신사추진위원회나 집행위원회에서는 이런 작업의 성과를 활용해 보는, 즉 영화화를 위한 시연회를 한번 해 본다든지 영화감독들을 초청해 시나리오 작업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는 작업들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용득

피난수도로서의 부산이나 조선통신사가 출발하는 기착지로서의 부산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6.25 전쟁에서 낙동강은 최후 보루로, 군수기지로 역할을 했죠. 또 조선 시대에도 낙동강 수로는 초량 왜관을 통해서 많은 문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죠. 육로로 가는 영남대로도 중요하지만 역시 경북까지, 관찰사가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낙동강 수로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부산의 문화유산으로 모두 포용하고 맥을 잡아야만 합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발굴한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앞으로 발굴될 문화유산까지,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계승되려면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용득

그렇죠.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조선통신사의 경우를 보면, '초량왜관연구회'에서 회의를 통해 많은 기획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선통신사'연구회에서 이걸 빠뜨리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모여 토론하고 연구도 하면 제대로 확대가 될 겁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민간과 학계, 행정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나동욱

결국은 시민의 의도를 읽어 내거나 시민교육이 중요해집니다. 물론 최근에는 지역사 교재가 만들어져 초등학교 때 지역에 대해 알아가고 있지만, 이런 교육과정의 열매를 맺으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일입니다. 현재의 시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이나 공개강좌 등이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교육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연결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자주 다루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시민교육이 되고 시민들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시민단체 육성 문제도 중요합니다. 또 답사 코스도 많이 만들고 부산의 문화유산에 대해 활발히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민간단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관이든 학교가 주도해 어느 정도까지 끌어당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득

전문가들은 많죠. 하지만 일반인에게 저변 확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로 많은 사행국이 1차 번역은 됐지만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좀 난해하죠. 이런 것들을 눈높이에 맞게 번역해서 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조선통신사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부산 이야기'나 문화잡지에 쉽게 풀어 연재할 필요도 있습니다. '동래부사접왜사도'도 이렇게 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사회자

끝으로 부산의 많은 문화유산들 중, 이것만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박창희

작년에 '부산의 길'을 한번 들여다보니 기본적으로 '옛길'이 있습니다. 최소한 100년 이상, 심지어 천년 이상이 된 길도 있습니다. 그게 범어사 올라가는 금어동천길인데, 범어사 옛길입니다. 비석도 있고, 금어동천 바위도 있어요. 옛길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500년 정도 된 기장 용소길도 있어요. 그리고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길 역사가 있는 황산도, 동래 길도 있어요. 동래읍성에서 좌수영 가는 길도 있습니다. 동래성은 행정 중심이고 좌수영은 군사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에는 행정과 군사 간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가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이렇게 길들을 조사해 보면 문화유산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나동욱

길을 가다보면 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불망비, 선정비 같은 비석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의미 있는 비석들을 찾아서 사진 확보를 만들고 스토리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길과 생활민속을 엮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결국 이런 자료들을 축적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관과 연계를 할 수 없거든요. 부산문화재단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른 기관과 연계하게 되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이용득

왜성은 남해에만 산재되어 있는데, 특히 부산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맛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 기장에도 성(城) 박물관 만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우리 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명한 성, 드라쿨라성 같은 것들을 만 들어서 즐기도록 하고, 부산 금정산성 등을 집약해서 부산의 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하고 실제로 왜성을 볼 수도 있게 하자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박물관을 통해서 투어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부산에 없잖아요.

나동욱

그게 부산의 도시 정체성의 한 부분이거든요. '왜성'을 통해, 부산의 '해양과 군사'라는 지역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봉수대 원형이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은데 부산시에서는 꼼짝도 안 해요. 조사팀을 꾸려 조사 연구하고 아카이브화 해서 더 크게 육성해 주는 조정자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박창희

그래서 대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조명해내고, 마스터플랜 속에서 문화유산을 찾아 예산을 투입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신적 문화유산, 책, 구전, 지역 자산, 민중 자서전 등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래문화유산이 중요한데, 서적, 건물, 예술품, 시장 골목, 기술, 음악, 경관 이런 것들이 다 미래의 문화자산이 되는 것들이죠. 100년 후의 미래 자산을 지금 모으는 그런 개념으로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위로부터의 기획이고 발상이잖습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염두에 둘 것이, 문화유산이 존재하려면 그걸 문화유산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이라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문화유산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그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자체가 현재의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엮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동욱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의 문제로, 시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앞장서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물을 먹게끔 만들어 주는 것처럼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이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면서 때로는 갈증 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해 줘야 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동욱

박물관에서는 앞으로 유산이 되는 것들을 수집해 내야 해요. 지금 유실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서 의미를 부여하여 유산으로 만들어야 해요. 결국 이것들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유산에서 보존을 하고 자료를 남겨 놔야 합니다.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부산문화재단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발간물로 보는 부산문화재단

10년

글_ 장덕현(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원북원부산운동운영위원장)

1. 들어가며

사회의 다양한 관계와 위치(positioning)로부터 생산된 담론은 기록매체를 통해서 확산되고 공유된다. 대표적인 기록매체인 책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된 매체일 뿐만 아니라 담론과 관습, 문화를 습득하고 공유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정치적, 사회적 견해가 표현되고 이들이 확산되고 소비되는 매체인 출판물들에 의해 사람들의 의식은 구체화된다. 그런 점에서 출판물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사적 요소이다.

문화예술을 통해 부산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산을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변화시킨다는 사명을 가지고 설립된 부산문화재단이 이제 곧 10년을 맞는다. 부산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창작기반 조성과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특히 눈에 띄이는 것은 그동안 재단이 발간해 온 출판물들이다.

사실, 하나의 조직이 걸어 온 길을 되짚어보고 오늘의 위치를 점검하며, 이를 토대로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도구로 그간의 역사가 담겨있는 발간물만큼 중요한 자원이 또 있을까.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어언 10년을 맞이하게 되는 부산문화재단의 발자취를 대표적인 발간물들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기록물의 의미

한 기관의 이력이 기록된 발간물은 의도적, 체계적 노력의 결실이다. 즉, 발간물은 그 기관의 사명과 비전, 그리고 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공식적인 관점과, 당대의 기록을 후대에 전승해야 하는 지적 유산이라는 통시적인 관점을 동시에 지닌다. 이렇게 볼 때, 한 기관의 발간물은 그 기관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그 기관이 지난 세월동안 어떠한 지적, 사상적, 문화적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기관이 주로 다루는 영역이 문화일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높다. 문화는 생활의 방식(Ways of Life)이며, 기록을 통하여 기억되기 때문이다. 기록은 사회의 기억으로서 문자와 그림으로 기록되어 당대에 유포되고 후대에 전승된다. 따라서 기록은 그 자체로 문화적 행위이다.

기록이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개인적 기억의 유동성과 불안정성, 그리고 삶의 유한성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인류가 장기간에 걸쳐서도 정보를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쓰기와 그리기를 개발하여 남기도록 하였다. 즉 기록은 불안정한 인간의 기억을 영속적으로 보존하는 수단이자,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이 지닌 힘을 확장하는 수단이며, 공유된 경험으로서의 집합적 기억이다. 즉, 공통적인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기억들 속에 중첩되는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매개로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때 집합적 기억은 공유된 경험과 전통, 문화적 관심과 상상력의 차원을 특징짓는 정교한 네트워크이다.



3. 부산문화재단의 “기억”

부산문화재단의 발간물 또한 로컬리티의 기록이며, 부산의 경험과 정체성, 상상력의 네트워크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012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는 [조선통신사 저널]이다.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의 약 200여 년간 12번에 걸쳐 일본을 방문한 신료의 사절(通信)이었다. 한양(漢陽)을 출발하여 일본의 수도인 에도(江戸)까지 반년 이상이 소요되는 왕복 약 3,000km의 여정에서 수많은 교감과 신의를 나누었다. 이러한 조선통신사의 역사와 행적, 그리고 평화의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은 그간 부산문화재단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철마다 발간되는 [조선통신사 저널]은 조선통신사 연구에 관한 다양한 소식과 각계 전문가의 칼럼, 다양한 실사기록물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어 한일 양국의 학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좋은 정보가 되고 있다. 지난 어느 호의 표지를 보다가 “조선통신사 UNESCO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 등재를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이러한 각계의 노력에 힘입어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한국 63건 124점, 일본 48건 209점)은 2017년 10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한일 양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로서 부산문화재단과 일본의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지난 수년간 노력해 온 덕분이라는 평이다.

2012년 10월 창간하여 2014년까지 총 10호를 발간한 [낮선 아침]은 노숙인을 위한 잡지이다.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계간지를 표방하여 매호 약 1천부를 시내 주요 서점과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이 잡지는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게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되찾도록 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1995년 미국의 얼 쇼리스(Earl Shorris)가 창설한 클레멘트코스(Clemente Course)를 연상시킨다. 물론 국내에서도 성공회대학교의 '성프란시스 인문학강좌'와 서울시의 '희망의 인문학' 사업 등으로 확산된 예가 있다.

[낮선 아침]은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간 측면도 있다. 매호 60여 쪽 분량의 이 잡지는 지역 예술가들의 재능 기부와 노숙인들의 참여로 만들어졌으며, 부산역에서 노숙인을 따라다니며 겪고 쓴 체험기에서부터 노숙인 수기, 시, 독후감 등 다양한 글과 사진을 담고 있어 지역사회가 노숙인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잡지를 만들고 배포한 사례는 없지만 노숙인이 직접 참여해 노숙인 잡지를 만든 것은 [낮선 아침]이 최초의 시도로 기억될지 하다.

계간지 [공감 그리고]는 한 계절 동안 부산문화재단의 활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소식지로서 문

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이를 확산하고자 하는 부산문화재단의 사명이 잘 드러난 계간지이다.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어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선통신사역사관을 비롯한 시내 주요 지점에서 배포되고 있으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도 제공된다. 다양한 글과 이벤트에 대한 사진 등 너무나도 넓은 문화 영역의 다채로운 내용들을 세심하게 다루고 있어 놀랍다.

최근 들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부산문화재단이 발간하는 단행본들이다. 재단은 <부산문화재단 사람·기술·문화 총서 시리즈>를 발간하여 부산다움의 가치와 로컬리티를 소통의 장으로 끌어내고 있다. 2016년 1월 발간된 [사람을 품다 이야기를 담다 부산의 시장]을 필두로, 2017년 3월에 제 2권 [세월을 머금다 솜씨를 담다 부산의 점포]와 3권 [생각을 그리다 문화가 되다 부산의 만화]를 발간하였으며, 2018년 1월에 제4권 [까꼬막을 오르다 이바구를 만나다 부산의 마을버스]가 발간되었다.

[사람을 품다 이야기를 담다 부산의 시장]은 부산의 소설가, 시인, 학자, 여행작가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부산의 시장을 소개하고 시장 상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미니 백과사전과도 같은 느낌이다. 제 2권 「세월을 머금다 솜씨를 담다 부산의 점포」는 부산지역의 시인, 여행작가, 역사학자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부산의 노포(老鋪)를 지키는 장인들의 이야기와 그 속에 얹힌 이야기를 담았다. 또한 「생각을 그리다 문화가 되다 부산의 만화」는 지역의 다양한 필진들이 참여하여 부산 만화의 역사와 부산 출신 만화가들의 열전을 썼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제4권 [까꼬막을 오르다 이바구를 만나다 부산의 마을버스]에는 부산 예술가 19명이 직접 마을버스를 타고 "봐도 봐도 물리지 않는 부산의 바다 풍광을 천 원 안팎으로 구경할 수 있는 알뜰살뜰 여행코스"를 누비며 기록해 낸 17가지 색깔의 진솔한 부산 이야기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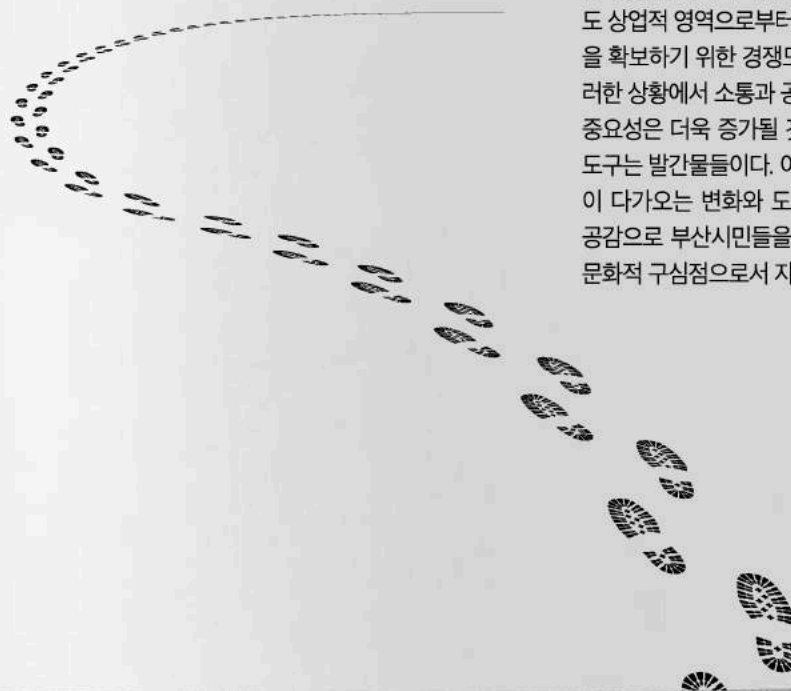
이 4권 모두 독자들의 마음속에 부산이 점염(漸染)하도록 해주는 따뜻하고 정감 있는 아름다운 책이었다.

4. 결론

발간물들을 통해 부산문화재단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며 다시 확인한 것은 앞으로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단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사회구성원 누구나 나이, 출신지역, 거주지,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읽고 싶은 것을 읽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며,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문화야말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반면 문화와 예술에 대한 투자는 쉽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 내에서도 상업적 영역으로부터의 도전과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 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네트워킹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며, 그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발간물들이다. 이를 통해 부산문화재단이 다가오는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부산시민들을 통합하는 매개체로서, 문화적 구심점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속살을 보다

62

다르면서도 같은 길, 「부산의 마을버스」 황선열

66

역사의 터전 위에서 시공간을 그리다 권오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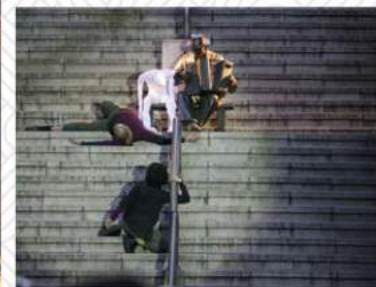
70

일상의 거리예술, 꽃을 피우다 황해순

74

금정문화재단, 기초에서 문화를 말하다 설영성

74



70



70



66



66

글_ 황선열(97년 매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한국작가회의 회원, 신생인문학연구소 소장)



다른 길

『부산의 마을버스』 (부산문화재단, 2017)

다 른 길

각기 다른 공간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배치 묘사하며
맞추듯 아름답게 정복한
책이다.

『장자』의 '변무(駢拇)'에는 각기 다른 것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발가락이 서로 붙어서 네 발가락이라 생각하지 않고, 손가락이 여섯이라고 해서 그 나머지 하나를 여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오리의 다리가 짧지만 그것을 길게 해주면 괴로워하고 두루미의 다리가 길지만 그것을 짧게 하면 슬편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물은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지고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각자의 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산의 마을버스』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은 도시의 곳곳을 싹뿔줄로 연결하는 마을버스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본 책이다. 작지만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통해서 도시의 한 켠에서 묻어나는 사람살이의 흔적을 읽어낼 수 있는 책이다.

우선 이 책의 필진부터 살펴보자. 이 책의 기획을 맡은 분은 부산의 곳곳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고 있는 시인 동길산이다. 총론은 도시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강동진 교수가 맡았는데, 그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그 유기체의 물질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마을버스라고 말하고 있으며, 배려와 공감으로 가득 찬 싹뿔줄 같은 마을버스가 도시의 곳곳을 연결한다면 그 도시는 분명히 건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의 마을버스인 프라트를 소개하면서 문턱을 낮춘 작은 배려가 마을버스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도시에 대해서는 안창마을 스토리텔링 작가인 심규환 선생이 동구 1-1번 마을버스를 타고 안창마을과 매축지마을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고, 사진작가 뿌리야김 선생은 진구 15번 마을버스의 일상을 의인동화의 기법으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으며, 서화성 시인은 사상 7번 마을버스가 지나는 곳의 생활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속살까지 찬찬하게 파헤치고 있다. 임희숙 소설가는 사하 1-1번 마을버스 운전기사 문정명 씨의 일상을 통해서 마을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다루고 있으며, 이미옥 소설가는 연제 1번 마을버스를 타고 연제도서관, 연산 시장, 이마트, 물만골을 따라가면서 도심과 도심 끝자락의 일상을 취재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네 분의 필진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도심의 마을버스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부산의 중심인 바다 이야기는 여섯 분의 필자가 담당했다. 사진작가인 박수정 선생은 강서 1번 마을버스를 타고 가덕도의 인심과 사람살이, 그리고 역사의 풍광을 담아냈으며, 소설가 강성은 가장 3번 마을버스를 타고 해안도로의 아름다운 풍경과 가마골소극장, 고리 원전까지 살살이 답사하면서 마을버스 기사의 딱딱한 생활까지 밀착해서 보여주고 있다. 김정화 수필가는 남구 2-1번 마을버스가 가는 길을 감성이 묻어나는 필치로 그려내고 있으며, 권정일 시인은 사하 15번 마을버스의 시작 지점인 다대포와 끝 지점인 아미산전망대까지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숨어있는 비경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조형예술가 윤영화 교수는 영도구 2번 마을버스 노선에서 만날 수 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예술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강정이 시인은 해운대 2번 마을버스가 가는 비경 중의 하나인 청사포를 통해서 부산 바다의 아름다움을 시인의 감성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작가들은 바다를 배경으로 달리는 마을버스의 길을 독특한 필치로 담아내고 있다.

산을 끼고 도는 마을버스 이야기는 세 명의 필진이 소개하고 있다. 김재원 동화작가는 철마면 오지를 누비는 금정 2-3번 마을버스 이야기를 작가의 체험과 함께 서술하고 있으며, 극단 일터 상임연출자 김가영 선생은 동래 203번 마을버스를 타고 금정산성 길을 올라서 부

산의 명산을 누비는 마을버스를 소개하고 있다. 지식나눔 공동체 아미고 대표를 맡고 있는 황정미 선생은 중구 1번 마을버스를 타고 중앙공원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바다와 오랜 역사가 깃든 부평동 강동 시장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부산의 마을버스 이야기는 단순한 마을버스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속살 곳곳을 누비면서 부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그 이야기는 천편일률적인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가 맡은 분야의 특징을 살려서 그들의 시선에 포착되는 풍광들을 독특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시인은 시인의 감성으로, 소설가는 사람살이를 묘사하는 방법으로, 사진작가는 카메라에 풍경을 담아내듯이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책은 '변무(駢拇)'에서 말하고 있듯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대로,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대로,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부분 그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여주고 있다.

부산은 국제도시이다. 그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거대하고 멋진 도시의 모습을 담아내야 할 것이지만, 이 책은 그 도

시의 이면을 찾아가고 있다. 어떤 글이든지 간에 필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 쓴 글은 없다. 심지어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그 마을의 이야기를 썼다. 그렇게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곳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마치 동네 사람이 자기 마을 이야기를 담아내듯이 정겹고 친숙하다. 부산의 싹틔줄 같은 곳을 그 곳을 잘 아는 사람이 들려주는 참된 부산의 이야기이다. 이 책 한 권으로 부산의 속살을 책상에 앉아서 느낄 수 있다. 그러다가 심심하면 이 책을 끼고서 여기에 소개된 이야기를 따라서 마을버스에 오르고 싶게 한다. 각기 다른 공간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마치 모자이크를 맞추듯 아름답게 장식한 책이다.

그렇다고 이 책은 무작정 좋은 것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버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방법을 찾기도 하고, 마을버스의 역할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제안한다. 일본에서 운행하고 있는 프라트라는 마을버스 같은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버스에 오르는 문의 높이를 낮추어서 새롭게 만들기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 책을 통해서 부산의 마을버스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같은 길

마을버스의 풍성한 이야기를
각기 다른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따뜻한
인간의 정을 중심으로 같은
길에서 만나게 된다.

이 책은 각기 다른 시선으로 부산의 마을버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같은 길이 놓여 있다. 우연이겠지만 마을버스 이야기를 쓴 필자들은 그 마을버스에서 같은 길을 발견하고 있다. 마을버스는 대형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을 운행한다. 그래서 모두가 작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골목골목을 다닐 수 있고, 다른 차들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마을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같은 길은 마을버스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이다. 도심으로 상징되는 삭막한 공간이 아니라, 도심에서 떨어진 훈훈한 공간이다. 그곳은 도심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사는 공간이다. 그 공간은 도시의 각박한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이 살아있는 곳이다. 모두가 가족이고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다. 도시는 거대한 공동체처럼 움직이지만 그 내부에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작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공간은 밀려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호흡을 담당하는 공간이다. 죽음과 같은 도시의 공간 속에서

도심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 공간은 어쩌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 울타리의 곳곳을 다니면서 허물어진 도시의 삭막한 공간을 메꾸어 간다. 이 책은 부산 도시의 아름다움을 인간의 정으로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 부산에서 이런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도시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이다.

책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한다. 이 책을 끼고 부산의 도시 곳곳을 누비면서 사람을 만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이 책은 마을버스의 풍성한 이야기를 각기 다른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따뜻한 인간의 정을 중심으로 같은 길에서 만나게 된다. 다르면서도 같은 길은 부산의 도시 문화를 상징하는 언어이다. 항구라는 특징은 떠나고 돌아오는 곳이고, 만나고 헤어지는 곳이다. 토착민도 많지만 이주민도 많다. 서로 뒤섞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을 따뜻한 인정으로 감싸고 있는 부산의 마을버스 이야기는 부산 문화의 독특한 모습을 잘 담아낸 책이다.





역사의 터전 위에서 시공간을 그리다

글_ 권오혁(아티멘션 대표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외래교수)

각각의 건축물들은 모진 시간의 흐름을 견디면서 그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 그 공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낸다. 조선시대 초량왜관이었던 구(舊)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이러한 의미에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이 터전 위에 예술가의 손이 닿으면 어떠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까? 여기 멈춰버린 시간 속에 그 재미난 예술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12월 14일까지 부산의 청년 작가와 함부

르크 작가들이 만나서 국제적인 미술교류전을 펼쳤다. 전시는 부산의 문화와 역사의 가치를 지닌 구(舊)한국은행¹⁾에서 진행되었다. 미술(Art)과 역사(History)의 합성어인 Arttory에 지역의 번지수 112를 합하여 'Arttory112'라는 주제로 작품을 선보였다. 범죄 신고를 떠오르게끔 하는 112라는 숫자는 관객들에게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신고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불러오기도 한다.

주변에 새롭게 지어진 건물과는 사뭇 차이를 보이는 옛 건물의 낡은 철물을 지나 전시장 입구로 들어서자 각 나라의 다양한

지폐들이 휘날리는 모습으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텅 비어있는 은행의 모습에 마치 금방이라도 도둑이 휩쓸고 가버린 모습과도 같았다. 이것은 정안용 작가의 설치작품이다. 정안용 작가는 연기를 통해 지폐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출력하여 전시장 공간을 채웠다. 은행에 돈이 있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돈은 연기로 만들어졌고 그 연기는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수 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고 이러한 돈은 내게로 흘러왔다가 또 다시 다른 것으로 흘러간다. 이러한 돈의 특성이 연기와도 같고 그러한 흘러감이 은행의 업무와 매우 닮아있다. 특히나 재미있는 것은 대상의 특징과는 정반대로 시간의 연속성 속에 있지만 모든 것이 멈춰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세상 속에서 나만 혼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였다. 시간이 멈추어버린 역사 속 옛 은행의 공간에 흩어진 지폐들을 정지된 모습으로 설치하였고 이 지폐들은 사라지기 전 잠시 존재하고 있는 연기의 이미지이다. 생각할수록 흐름의 움직임을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았다.

전시장 전체에 흩어진 정안용 작가의 작품을 이리저리 살펴보면 눈에 들어오는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Non-art space",



"들어가지 마시오" 이 두 문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뿐이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안내문을 보아서는 분명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는 것인데 텅 빈 공간 외에 도무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저 Non-art space라는 것뿐이었다.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가 있었다. 혹시 공간을 전시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예술 공간속에서 작가는 예술 이외의 공간을 전시해 우리들에게 작품으로써 선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마치 박스 안에 박스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 작품은 함부르크 작가 Simon Starke의 작품이다. 작가는 예술 공간과 비예술 공간의 이분법적 사고를 선보이면서 일상공간이 아닌 모든 공간을 예술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로인해 더 이상의 은행 업무를 보지 않는 이 공간은 예술 공간이 되고 여기에 라인을 그어 비예술 공간이라고 칭하면서 이것이 예술작품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공간이 예술 공간인데 이러한 공간을 일상(日常)²⁾ 공간에 내어주었다가 일상으로서의 활용이 끝나면 다시 예술 공간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에서 작가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선보였다. 이러한 작가의 제안은 나에게 매우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공간뿐만 아니

1) 부산 중구 대청로 112번지 (구)한국은행 부산본부 1층

2)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라 시간에 적응해 보았을 때 '나의 일상시간 이외의 다른 시간'은 예술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았다.

인도의 두르가 여신³⁾을 연상케 하는 이 작품은 그와는 반대로 아주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다. 팔과 다리가 여러 개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 특이했지만 금세 시간의 연속성을 표현한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여러 개로 표현된 팔과 다리는 각각 다른 동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연속된 하나의 동작을 보여주고 있었다. 유은석 작가는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이 순간 정지되었을 때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던 팔과 다리의 운동력을 이처럼 표현하였다. 움직이지 않는 조형물이 시간 속에서 마치 그 운동력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앨범 속 작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모티브로 한 <수줍은 개구리 왕눈이>는 누구나 하나쯤 간직하고 있는 유년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입구를 서로 맞대고 있는 투명한 유리병 속에 담긴 물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고요하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유치원 발표회의 즐거운 음악소리가 들릴 것 같은 유은석 작가 작품의 운동력마저 잠잠히 만들어버릴 것 같았다. 이렇게 잠잠해 지기 전까지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요동침이 있었는지를 짐작

해볼 수 있다. 처음에는 두 유리병이 서로 물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움직임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지금을 이렇게 멈추어 있다. 시간을 거슬러 두 유리병 사이를 오가며 출렁거리는 물을 상상해보았을 때 순간 활기가 넘치는 분주한 은행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정신을 차려 다시 잔잔한 물을 보았을 때 고요하고 적막이 흐르는 은행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작품을 관람하는 나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것만 같았다.

지금의 이 물은 멈춰있다. 하지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은행 업무는 멈추었지만 이 건물은 지금도 시간적 흐름을 타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유리병에 멈추어 있는 물 또한 시간 속을 흐르고 있다. 이렇게 흐르는 물은 멈추었지만 멈추었다고 말할 수 없다. 관객의 관념⁴⁾에 따라서 물은 멈추게도 할 수 있고 흐르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함부르크 작가 Ina Arzenšek는 관념을 열어 보이며 관객으로 하여금 마음 속에 있는 사물의 형태와 과정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박상은 작가의 작품이다. 여기 예쁜 장미꽃이 있다. 이 장미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거미줄에 휩싸인다. 그리고 결국 이 거미줄은 장미꽃 전체를 감



3) 두르가 여신은 힌두 사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신상이다. 팔이 8~10개 있으며 손에는 신들이 준 온갖 종류의 특별한 무기들을 쥐고 있다
4)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관한 견해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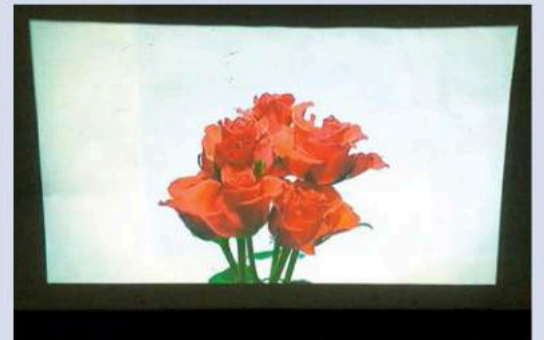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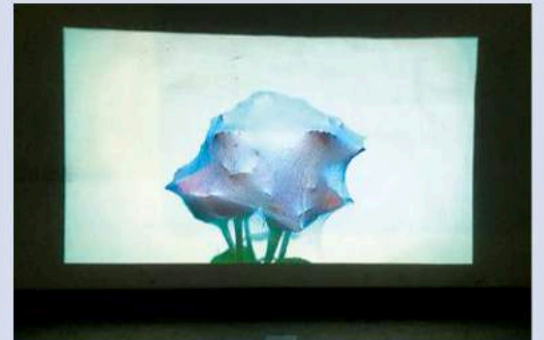
싸버리고 장미꽃의 형태를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꿔 놓아버린다. 처음의 장미꽃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또 다른 작품에는 여성의 배에 태아의 모습을 새겨놓았다. 이 태아의 모습은 피부에 자극을 가하여 부어오르게 함으로써 나타나게 한 것이다. 이후 여성은 자신의 배를 사정없이 마구 긁어댄다. 이러한 자극으로 인해 여성의 피부는 부어오른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부어오름으로 인해 태아의 이미지는 사라진다.

이 두 작품은 박상은 작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고 상실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으로서 그리고 아내와 엄마로서의 자기 자신은 외부로부터의 억압과 자극 그리고 사회적 제도로 인해 어느 순간 시스템⁵⁾ 속에 갇혀버린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아 존재의 상실을 부정하면서 이러한 작품을 선보였다. 시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이 혹독하다는 것은 아마도 그 속에서 사회 문화의 제도를 견뎌 내야하고 무한하지 않는 유한함을 살아가기 때문일 것이다. 그 혹독함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간직할 수 없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본 모습을 상실한 이 은행 건물과 닮아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은행 건물이 새롭게 전시장으로 탈바꿈한 것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에서 잠시 내려와 나를 돌아보았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한 자아를 발견하기를 기대해본다.

특별한 장소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장소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살려서 기획되었기에 작품을 감상하는 내내 너무나도 즐거웠다. 특히 시간과 공간을 작품 속에 가시화하여 표현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 독일 현대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 이러한 전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방명록에 나의 이름을 쓴다.

5) 어떤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짜서 이론 조직이나 제도.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





일상의 거리예술, 꽃을 피우다



1. 격변의 일상, 왜 거리예술인가?

격동의 지난 일 년, 광장과 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고, 또한 어떻게 다가왔는가? 상실의 시대, 자괴감을 넘어 자각된 민중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촛불의 함성을 우리는 거리에서 마주 하였다. 삶이 곧 문화라고 했을 때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현상은 곧 문화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상의 사회적인 모순을 직시하는 예술의 근원적 역할과 예술가의 사회적 기여를 우리는 지금-여기 거리 곳곳에서 목도한 바 있다. 심지어 광화문광장 전인권이 노래한 '걱정 말아요 그대'는 예술의 사회적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변화의 일상에서 거리예술은 꽃 피는 것이다.

거리예술은 '예술의 공공성', '예술을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란 질문으로부터 출발하며 문화예술에 소외된 시민들에게 골고루 문화예술을 향유하려는 관계의 미학이다. 또한 '참여에 의한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배경으로 거리에서 공간과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청관중과 예술가의 경계를 허물며, 도시와 사회의 풍경을 바꿔나가는 '문화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거리예술의 의미

거리예술은 '거리'와 '예술'이란 명사의 결합에서 이루어진 용어로 어의에 집중하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거리는 단순히 야외공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극장공간을 제외한 일상공간을 의미한다. '거리'를 '사회적 공간이자 공공의 공간으로서, 각 개인이 자신만의 영역을 벗어나 타인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정의한 마르셀 프레드폰트(Marcel Freydefont)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거리는 소통의 공간이다. '거리는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정신이다.' 간하지 않아서 자유롭고, 정해진 틀이 없어서 유연하여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거리예술은 공공 공간을 소통의 공간으로 변하게 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축제의 자유로움을 체험하게 한다. 프랑스 살롱축제를 발의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키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도미니크 페르벤(Dominique Perben)은 거리예술에 대해서 '내게 있어 도시를 다르게 살아내고, 그 거리의 광장들을 다시금 발견하며, 대부분 단순히 스쳐가는 곳을 축제와 만남의 장소로 재평가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거리예술은 거리 공간에 대한 탐구와 일상 공간의 변형을 시도하는 것에서부터 단순히 공연 공간만을 극장 밖으로 이동한 공연에 이르기까지 외연이 매우 넓고, 아직도 실험적 시도와 장르간의 혼종이 진행 중이다.

3. 부산의 전통과 다양한 거리예술

부산은 예로부터 거리예술의 고장이었다. 부산의 전통연행인 동래야류와 수영야류는 들에서 노는 '들놀이'로서 대표적 거리예술에 속한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말뚝이에서부터 문둥이 남녀노소, 반상 할 것 없이 뭇난 농끼리는 얼굴만 봐도 즐겁다든가 한바탕 난리굿판이 벌어진다. 유랑예인으로서는 떨거지, 각설이, 먹설이, 동설이, 풍각쟁이, 솟대쟁이, 사당패, 모래잡이, 굿중패, 마중패, 날당패, 짚이패, 가리내패, 초라니패, 화랭이패 따위 온갖 인물군상패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 씨구 하고 걸판진 마당'판'을 벌인다. 게다가 아미농악, 동래지신밧기, 동해안 별신굿 등은 모두 일상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연행물로서의 거리예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 통신사 행렬도의 마상재(말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기예)기록은 아크로바틱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전통문화에 내재된 가치를 기반으로 서로 어우러져 소통하고 상생하는 관계성 회복을 '마당판'을 통해 구현된다.

또한 부산은 문화적 전통뿐만 아니라 거리예술에 최적화된 기후와 자연조건, 천혜의 환경 등을 가진 도시로 여름에는 관광객 1천만 명이 부산의 바다를 찾는다. 이러한 기반으로 부산에서도 몇 년 전부터 거리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용두산 공원을 거점으로 탄생한 비보이 그룹들의 <비보이 페스티벌>과 전국 최초의 장소 특정적 거리 춤 <랄랄라 거리춤 페스티벌>,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부산 국제행위예술제>, 지역적으로는 광안리 해운대 해변 차 없는 거리의 공연, 부산대앞 온천천 젊음의 거리페스티벌, 서면거리와 시민공원의 버스킹페스티벌, 원도심 사십계단과 영도다리의 거리공연, 서부산권 사상 다문화거리 등 도시의 여러 일상 공간에서 우리는 친근하게 거리예술을 즐길 수 있다.

4. 문화적 유목 거리예술

거리예술은 공공예술의 신영역이며 바다, 숲, 공원, 광장 등 생생한 현장을 찾아가는 관객과 직접적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관계의 미학'이다.

유럽 각 나라가 거리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매년 700여 개의 거리예술제가 펼쳐진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거리예술제만 250여 개. 600여 개의 프랑스 거리예술 전문집단은 유럽 전역을 순회하며 공연을 펼친다.

실제로 독일 베를린장벽의 수많은 벽화 앞에서 노래하는 버스커들의 자유분방함과 런던의 지하철과 문화유적에서 우리는 거리 예술가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사람과 예술이 만드는 아름다운 경관은 관객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다. 관광지나 공원에서 인상적인 거리예술을 보았던 시민은 그 곳을 지날 때마다 행복했던 추억을 되살릴 것이다.

또한 그 경이로운 추억은 거리예술의 장르 특성에 기인한다. 즉 실험적이고 새로운 종합예술이기 때문이다. 시각, 음악, 춤, 마임, 스토리, 영상, 연극, 멀티미디어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장르 융복합 예술이다. 규모도 한두 명이 참여하는 작은 버스킹에서부터 수백 명이 참여하는 대형 공연까지 가능한 공공예술의 새로운 영역이다.

5. 부산스런 거리예술을 꽃피우자!

3포지향 부산은 지리적 여건, 근·현대사의 굴곡이 잔존하는 역사적 배경, 개방적 시민의식, 국제문화도시로서의 관광 인프라를 토대로 한국의 대표적인 거리예술 도시로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 거리예술의 짧은 역사는 거리예술 장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일상공간에서 소음발생의 요인과 함께 상대적으로 극장의 공연 예술에 비해 예술적인 완성도가 뒤떨어진다는 식의 견해이다. 하지만 극장과는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주목성과 스펙터클을 만들어내야 하는 조건 상 예술적 표현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거리예술은 오히려 상당히 전문적이며 특수한 장르이다. 저변이 아직 좁은 새로운 예술 장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산 거리예술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거리예술전문인력 양성과 창작지원 공간 확보, 관광 정책과 연계한 거리예술네트워크 구축 등은 앞으로 거리예술단체들과 부산문화재단 등 행정 지원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바야흐로 이제 부산의 거리예술이 꽃을 피울 때가 왔다. 발상을 조금 더 확장하면 부산의 16개구·군에서 명소를 추천받아 부산 관광명소 100경을 지정하고 시간대, 요일별로 열 명의 예술가가 순환공연하면 1000명의 아티스트들의 창조적 활동공간과 일자리가 생기고, 시민들은 다양한 예술을 관광명소의 장소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일명 "부산100경 1000아티스트 프로젝트"를 희망해 본다. 여기에는 당연히 예술 행정의 지원정책과 합리적 소음 대책도 필수적이다. 끝으로 거리예술의 즐거움을 얻은 시민도 문화 발전에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 시민이 즐기는 문화의 이면에는 나름 문화예술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 문화 발전과 향유에는 당연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그 액수는 향

유자인 시민이 감동받은 만큼 주체적으로 정한다는 것에 거리예술의 탁월한 민주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제 일상에서 시민 모두가 예술가이며, 생활과 예술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이다. 그것은 시민 각자가 주인의식을 지니고 문화예술을 자기 일처럼 돌보는 '상생과 관계의 시대'를 말한다. 사람과 예술, 도시를 잇는 거리예술은 우리 일상에 숨겨진 생활의 가치와 공간에 담긴 의미를 재발견하고, 공동체와 생태성을 살리는 예술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개방성, 해양성, 저항성, 혼종성에 기반을 둔 부산예술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성큼 다가왔다.



금정문화재단, 기초에서 문화를 말하다

글_ 설영성(금정문화재단 사무처장)

'기초'라는 말은 한 존재를 구성하는 근본이다. '기초'는 시작이자 기반, 토대라는 의미로, 기초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변화, 확장할 수 있다.

우리 삶에 있어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삶의 기초공간으로서 집, 존재의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단위로서 일, 타인을 만나는 기초 단위로서 마을과 일터,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한 커뮤니티 등, 삶에서 기초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

문화에 있어 '기초'를 구성하는 존재들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문화를 누리는 향수자로서의 주민, 문화를 만드는 생산자로서의 예술가, 문화를 향유하는 기초 공간으로서의 마을이 될 것이다.

기초문화재단은 이 과정에서 기초와 기초를 잇는 매개역할을 맡게 된다. 역할의 범위와 단위 또한 매우 기초적이어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살터, 일터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주민과 예술가들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 된다.



금빛어거리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문화, 지역이 품고 있는 다양한 색깔의 문화



과거 특정한 계층, 존재들만 누릴 수 있었던 문화는 이제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가 되었다. 문화의 범위 또한 문화예술을 포괄한 삶의 양식으로 확장되었다. 문화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문화의 우열도 사라지게 되었고,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의 차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지역문화 또한 변방의 열등한 존재가 아닌 지역성과 토양을 반영한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기초단위에서 다양한 문화를 발현될 수 있도록 기초문화의 뿌리를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한 Top-down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문화행정 또한 기초단위인 지역에서 올라가는 Bottom-up 형식으로 달라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행정의 기초단위로서 기초문화재단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부산 최초의 기초문화재단, 금정문화재단의 1년

금정구는 1988년 동래구에서 분리된 신생 기초자치체이지만 금정산성, 범어사 등 부산의 고도심(古都心)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대학 4곳이 밀집한 대학도시이자, 예술중, 예술고, 예술대학이 공존하고 있는 예술교육도시로서의 면모도 가지고 있다. 또한 오륜대, 금정산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사공단 또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도시이다. 심지어 부산 유일의 이슬람 성원이 오륜대 천주교 성지, 불교선원과 나란히 배치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4대 종교를 포용하고 있는 금정의 정체성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금정구에 2016년 부산 최초의 기초단위 문화재단인 금정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금정문화재단은 금정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문화를 진흥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기초에 충실하면서 우리 구의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의도로 금정문화재단은 사업영역을 금정구민 누구나 문화로 행복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영역,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만들어 내는 지역문화영역, 금정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청년문화, 글로벌문화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는 체감효과를 주민들이 느끼기 위해서는 주민의 삶 속에 문화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 모두를 위한 생활문화사업으로 그동안 산책로의 기능만이 있었던 온천천의 공간을 금어빛으로 단장해서 인생샷의 명소로 만든 <금어빛 축제>, 지역의 청년예술가와 주민들이 문화소외지역 및 세대를 위해 직접 공연배달을 했던 <찾아가는 문화활동>, 일상의 거리에 아트서커스를 소개한 <부산거리예술축제> 등을 선보였다. 특히, 서동 미로마을을 중심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열렸던 지역밀착형 문화행사인 <문화로 통한 Day>사업은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사업 평가에서 1등상인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금정구의 특화된 전략 중 하나인 글로벌 문화사업은 세계시민교육수도, 문화예술교육특구를 표방하고 있는 금정구의 특징을 반영하여 아프리카를 하나의 문화아이콘으로 바라보고 국내의 다양한 아프리카 문화콘텐츠를 소개한 <부산아프리카페스티벌>, 세계무형문화유산 교육콘텐츠로 개발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배급한 <세계무형문화유산교실>, 국제교류사업으로 한국과 영국이 함께 당면한 고령화 문제에 대한 문화적 해결책을 모색한 한-영컨퍼런스 <창의적 나이들>,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문화예술이라는 틀거리로 풀어내 볼 수 있도록 한 청소년 창의예술교육사업 <일상 다 예술>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 대학로를 거점으로 다양하게 발현되고 있는 청년문화와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대학교와 금정산성다목적 광장에서 청년뮤지션들 간의 교류를 끌어낼 수 있었던 <청년문화박람회>, 청년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컬처디자이너> 사업, 청년예술인들의 첫 시작을 지원하는 <처음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편의점 만들기



기초자치단체인 구마다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재단의 사업영역이 문화예술영역과 더불어 도서관 등 기초인문학진흥영역도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의 일상과 문화의 접점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기초문화재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주민의 일상을 문화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문화예술의 단순한 공급과 보급을 넘어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문화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이웃으로 서로 만나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삶이 문화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예술가와 주민간의 상호 상생이 될 것이다. 결국은 삶의 공간에서 예술가나 주민이나 결국은 그 지역을 살아가는 똑같은 주민이기 때문이다.

금정문화재단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단사업의 범위와 역할을 확장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삶의 단위에 입체적으로, 소소하게 문화를 제공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동네 편의점처럼 마실거든가 볼 수 있는 문화편의점을 금정구 안에 골고루 배치하는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화편의점은 금정의 마을 곳곳, 구석구석을 예술가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주민의 참여가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가지면서, 주민의 문화적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나아가 금정구의 다채로운 문화적 색깔이 조화롭게 발현되도록 기초에서부터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그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형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기초적인 문화적 행위가 일어나는 곳, 삶터인 것이다. 그곳을 문화적 힘으로서 변화된 삶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이주자들의 코리아인 드림



글 Danny R. Guerra

(이주민과 함께(Solidarity with Migrants))

필리피노 커뮤니티 센터 책임자/조직 위원회 팀장)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것은 1994년 12월이었습니다. 합작 투자 프로그램 하의 산업 연수생으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르노 삼성 자동차 회사의 예비 부품을 제작하는 부산의 한 회사에 배정되었으며, 저는 그곳에서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1년 후 저는 그곳을 나와 밀입국 노동자로서 다른 기회를 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밀입국 노동자로 일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나쁜 경험도 많았습니다. 또한 여러 이민자들의 상황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필리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들의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도울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리피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주 노동자들을 돕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산 지역에서 1개의 필리피노 커뮤니티를 설립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은 점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및 그 외 도시와 같은 근처 도시에도 필리피노 이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계속 조직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미 6개의 필리피노 커뮤니티를 설립하였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밀입국 노동자로서 이곳 한국에서 일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이민자들의 상황을 매우 잘 알게 되었으며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밀입국 노동자라는 제 상황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가 합법적 신분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되면 반드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돕겠노라 스스로 다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행히 2007년 비자를 받아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다른 기회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민자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방법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최근 저는 SOMI에서 조직 위원회 팀장이자 필리피노 커뮤니티 센터 책임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상 저는 종종 여러 필리피노 조직을 방문하여 많은 필리핀 사람들을 만납니다. 커뮤니티 회의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몇몇 커뮤니티에 노동법 및 권리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필리피노 커뮤니티로부터 회의 참석 초대장을 받은 동시에, 이들은 한국에서의 이민자 권리에 관해 정보를 공유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A STORY OF MIGRANTS KOREAN DREAM

Danny R. Guerra

(Solidarity with Migrants)

Filipino Community Center Director/Organizing Committee Team Leader)

It was December of 1994 when my first step touch down in the land of Korea. I was send here as an industrial trainee under joint venture program. We are assigned in one company in Busan fabricating spare parts of Renault Samsung car company. I worked in that company for a year. Because of bad working condition in the company after a year I decided to run away and look for other opportunity as an undocumented workers. Working as an undocumented workers gave me lot of hard and bad experiences. I saw also the situation of many migrants. At that time I started to think and find way how I can help, change the situation of many Migrants not only Filipinos but all Migrants. In that, I started to build Filipino communities and at the same time I started to volunteer to the center helping Migrant workers. I first found one Filipino community in Busan area. And as time pass by I saw the good points of having community. In this I never think twice I continued organizing Filipino migrants not only in Busan area but also in nearby cities like Gyeongam and other cities. Recently I already founded 6 Filipino communities.

I've been working here in Korea as undocumented workers for 13th years. For that span I know very well the situation of many migrants and what are the help and needs they must have. At that time I really want to give all the help they need but because of my undocumented situation my chance of helping them is very limited. Thats why I do promise to myself that if I can have the chance of staying here with





부산 경남 지역에는 몇몇 필리피노 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 6개는 제가 설립한 커뮤니티입니다. 이러한 모든 필리피노 커뮤니티가 회원들을 돕고 혜택을 제공하는 자체 활동 및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필리피노 커뮤니티의 많은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여 많은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 더 많은 아이디어와 방법을 얻었습니다. 또한 부산 경남 지역의 필리피노들이 더욱 강력하게 통합 및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중 하나가 통솔 기구를 만들어 모든 필리피노 커뮤니티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저는 부산 경남에 위치한 모든 필리피노 기관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회의를 통해 이곳의 많은 필리피노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대화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통솔 기구가 있다면 필리피노를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서로 쉽게 소통하고 도울 수 있다고 계속 설명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부산 경남의 필리피노 커뮤니티는 통솔 기구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에는 필리피노 종교 단체 목사 및 성직자를 비롯한 거의 30여 개의 필리피노 커뮤니티 리더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1부에서는 모든 커뮤니티 리더가 자신의 커뮤니티와 활동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통솔 기구를 위한 각 리더들의 의견과 제안 사항을 교환하는 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한국 필리피노들의 공통된 문제가 무엇이며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해야 할 단계 또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논의하였습니다. 회의를 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필리피노들의 모든 문제를 모았습니다. 모두의 주목을 받은 큰 문제 중 하나는 회사와 문제가 있어 갑자기 실직하게 된 필리피노들입니다. 실직한 노동자들은 딱히 가거나 있을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곳에 가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필리피노 노동자들의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필리피노를 위한 쉼터 및 센터를 짓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모두가 쉼터 및 센터를 짓자는 제안에 동의하였지만, 이 꿈을 이루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피노 커뮤니티를 통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실현될 날이 올 것이라는 큰 희망이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제안된 계획은 센터와 쉼

손을 잡다

이주자들의 코리안 드림

legal status I will not think twice but I will do all the way that I can help them. Luckily in the year of 2007 I got the chance to have visa and stay legally here in Korea. At that time I never look any other opportunities to find good job instead, I think many things how I can help the migrants.

Recently I am working in SOMI as team leader of organizing committee and at the same time Filipino Community Center Director. In my job I often visit different filipino organization and meet many filipinos. I often attend meeting of different filipino community and help them improve the organization. Not only attending community meetings, I also conducted labor law and rights education to some communities. Because of this I received many invitations from different Filipino communities to join their meetings and at the same time they ask me to share some information about the rights of migrants here in Korea.

In Busan Gyeongnam area there are several Filipino organizations. Six of them are the community I founded. All of these filipino communities have their own activities and programs helping and giving benefits to their members. Attending many events and activities of different Filipino communities gave me more ideas and way to me to find out what are the things that many Filipino Migrant workers needs. It also gave me idea how we Filipinos here in Busan and Gyeongnam area can have more strong unity and cooperation. One of this idea is uniting all Filipino communities trough having an umbrella organization.

Because of this idea I started to communicate in every Filipino Organization who are based in Busan Gyeongnam. I started to convince them to have meeting and talk how we can improve the situation of many Filipinos here. I keep on

explaining to them, that if we will have the umbrella organization we can have more power to build more programs for the Filipinos and at the same time we can easily communicate and help its other at the time of needs.

On March of the year 2016, the first meeting was held. At that time also the Filipino Community in Busan Gyeongnam started the umbrella organization. The meeting was attended by almost 30 Filipino Community leaders including some Filipino religious group Pastors and Minister. In the first part of the meeting every community leaders got the chance to introduce their community and their activities. The meeting took some hours for the exchange of opinions and suggestion of each leaders for the umbrella organizations. We discuss also what are the common problems of the Filipinos in Korea and what are the steps or the solution that we need to task for the better future of all. During the meeting we gather all the problems of many Filipinos. And one of the big problem that got attention of all is those Filipinos that got trouble with their company and suddenly resulted of losing their jobs. Those workers that lost their jobs don't have the place to go or to stay. As we all know most of the workers don't have family here. This is one of big problem of many Filipino Migrants. In this regard everybody speak for their opinions to build a shelter and a Center for Filipino.

Everybody agreed to the suggestion to build a shelter and a center, but we all know that we will tackle lot of problems to reach this dream. But because we are started to have united filipino communities, we have the big hope that the day will come that this plan will come true. Not only having Center and Shelter is the plan that was suggested during the meeting. There is also

터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피노 문화 활동을 통해 한국인과 다른 나라에 필리핀 문화를 보여주자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필리피노가 한국인 및 다른 사회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솔 기구는 필리피노 이민자들이 향수병을 극복하도록 돕는 더 많은 활동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필리피노 스포츠 축제 및 지인 모임 역시 고려중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필리피노들은 서로 강력한 관계와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 3월, 우리가 꿈꾸던 필리피노 커뮤니티 센터가 시작되어 사전 오픈하였습니다. 필리피노 커뮤니티 센터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필리피노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는 민중 커뮤니티가 될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은 모든 필리피노 근로자와 이민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가치와 고유 문화를 지닌 시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배양하며 실직하거나 학대당한 필리피노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필리피노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문화를 더욱 깊게 이해함으로써 한국인과 필리피노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통합의 길을 강화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필리피노 커뮤니티 센터는 필리피노 이민자들과 한국인 간의 더 나은 관계 및 이해를 촉진할 많은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작년 6월에 시행한 필리피노 문화의 날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필리핀 문화의 아름다움을 한국 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필리피노가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국에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한국인들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잡다

필리피노 커뮤니티 센터는 필리피노와 한국인 사이의 자녀들을 위한 필리핀어 및 문화학교를 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필리피노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양 부모님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학교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이미 작년에 필리피노와 한국인 사이의 자녀를 위한 필리핀어 및 문화 일일 캠프를 시행하였습니다.

필리피노 이민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심축이 되어 한국 노동법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이주민들이 한국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침이 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실직하거나 학대당한 필리피노, 특별 보호가 필요한 필리피노들에게 주거지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 모든 이민자들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리피노 커뮤니티 센터의 목표입니다.

<이 원고는 필자의 영문원고를 번역하여 수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주자들의 코리안 드림

plans to have Filipino Cultural Activities to show to the Koreans and other nations the culture of the Filipinos, aim of this programs to bring the Filipinos more closer to the Korean and other society. Also the Umbrella organization have plan to create more activities that will help the Filipino Migrants cope to their homesickness. Busan Gyeongnam Filipino sports festivals and other get together acquaintance gatherings are also in the idea. In this way Filipinos can have strong relationship and friendship to each and everyone.

Finally last March 2017, the Filipino Community Center we dream was started and pre opened. The Filipino Community Center will be the grassroots community dedicated in improving the welfare of all Filipino workers living in the Busan, Ulsan and Gyeongnam Area.

Its establishment aims to benefit all Filipino workers and migrants through the various programs and events it offers to strengthen migrant awareness of the law to protect rights, to foster Filipino migrants' identities as citizens with upright values and unique culture, and to shelter Filipinos who lost their jobs, were abused and those who are in need of special care.

It also aims to foste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ulture to strengthen unity where Koreans and Filipinos live in harmony and partnership.

In this, The Filipino Community Center created many activity plans that will bring the better relationship and understanding between Filipino Migrants and Koreans. One of this program is the Filipino Culture Day that we did last year in the month of June. Aim of this program to show to the korean society the beauty of The Philippine

cultures and at the same time encourage them to accept the Filipinos living in Korea to be part of the Korean society. We also have plans to join the Korean Cultures program.

The Filipino Community Center have plan also to open a Filipino Language and Culture School for the Filipino Korean Children. Aim of this plan, to help the Filipino Korean Children understand and learn also the language and culture of their both parents.

And as a opener for this school programs we already did Filipino language and Cultures one day camp for the Filipino Korean Children last year.

To be a pivotal resource in improving the welfare of the Filipino migrants, increase awareness regarding the Korean labor law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migrant workers right protection, build a good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that shall guide migrants to live in harmony with the Korean population, provide a safe shelter which shall give residential care and protective service to those Filipinos who lost their jobs, those who were abused or those who are in need of special care. and to ensure every migrants receive help for different problems cause by different inevitable situation are the goals of the Filipino Community Center.

I know it is still far to complete our dreams but we already started our journey to reach what we wish for.

우리의 꿈을 이루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2017 부산문화 갈무리

BUSAN.CULTURAL.FOUNDATION

#1

#유네스코 세계유산



올 한해 부산문화의 가장 큰 쾌거는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꼽을 수 있다. 등재는 한일 양국이 민간에서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 더 의미가 있으며 재단은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내년에도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아울러 부산의 또 하나의 문화유산인 <피란수도 부산> 관련 교육, 전시, 강의 등을 신규로 운영하였으며 조선통신사 기록유산 등재의 노후를 살려 2023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여 준비하고 있다.

#2

#부산최초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지역 예술인복지 향상을 위해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서는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및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예술인 법률 자문 등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산예술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3

#혁신



2016년 12월 제 5대 유종목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새로운 재단의 운영방향을 제시했고 그 결과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4개의 혁신발전추진단(재원조성, 융복합콘텐츠, 홍보 활성화, 조직역량개발)을 구성하게 되었다. 구성된 추진단은 각 자연 12회의 모임과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기획형 브랜드콘텐츠제작 공모지원 사업 추진 등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4

#재단이미지개선



전년도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던 재단은 작년의 경험을 와신상담(臥薪嘗膽)의 해로 삼아 문화진흥분야 5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해 <가>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재단의 공정한 심의 시스템,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업, 예술활동 지원서비스 강화 등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가>등급을 받았으며 지역 예술인들 의료혜택 지원에 앞장서며 부산 내 21개의 병원과 협약을 맺어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해 나서 예술인 우대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도 했다.

#5

#청년문화 활성화



올 한해 부산 청년예술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기능과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한 해였다. 재단 내 청년문화팀이 정규 팀으로 신설되면서 청년문화 콘텐츠 사업 및 청년문화 육성지원사업이 날개를 달았고 그 결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국제교류·해외진출의 기회가 늘어났다. 또한 부산롯데백화점 신관 내 청년두드림 C-Box 운영을 부산지역 청년 예술가들에게 문화기획 및 활동에 대한 영감을 주고 진로에 대한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6

#공유문화



지난 11월, 생활문화 활성화 네트워크 페스티벌 <악기야 놀자>를 통해 부산시민 2,017명이 참여하는 부산시민 대합주와 악기 기부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는 각 분야의 생활문화 동아리와 개인 참가자들이 모여 감동의 합주를 이뤄냈고 악기 기부 캠페인에서는 총 188대의 악기가 모여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 재단은 공유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내년도에는 공유문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술가와 시민 간 선순환 구조를 통해 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계획하고 있다.

재단은지금 01

홍티아트센터 2017 오픈스튜디오 행사 개최



홍티아트센터에서는 지난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2017 홍티아트센터 오픈스튜디오를 개최하였다. 홍티아트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예술가와 창작공간을 연계하여 '공간과 공감사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홍티아트센터에 입주한 5명의 예술가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작업공간(스튜디오)을 공개하여 행 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공간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전시를 선보였으며 17년 9월부터 일본 큐슈예문관과 교류하고 있는 예술가 '노미키쿠코' 작가의 전시도 진행되어 한-일 문화예술의 교류의 장도 마련되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작가로 활동 하고 있는 안규철 교수가 <형태와 생각사이>라는 주제로 사물과 공간에 내재된 삶의 이면을 드러내는 오픈강의와 예술가와 함께 호흡하고 여행을 통해 음악활동을 하는 가수 하림이 '공간'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시간을 담는 그릇>도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오픈스튜디오는 '공간'을 주제로 진행하여 부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만창의문화촌 입주예술가(박정윤)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홍티 in 움직임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재단은지금 02

청년 문화기획자로서의 첫 걸음, 20show



부산의 청년예술가가 참여하고 직접 만드는 '20show'가 11월 3일(금)부터 5일(일)까지 비온드 가라지와 CAMPUS D (DRB동일)에서 개최되었다.

2016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청년 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아카데미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선정된 5개의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중앙동 비온드가라지와 금사동에 위치한 CAMPUS D(DRB동일) 총 2곳에서 5개 팀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펼치며 선정된 5개의 팀은 해우소, 딸깍팀, 선인장프로젝트, U SEE, 조아팀이다.

비온드가라지에서 진행된 선인장 프로젝트의 <청심환프로젝트: 모든타임즈>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세대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전시, 공연, 토크쇼를 진행하였고, 딸깍 팀은 청년들의 도전을 지속하게 만드는 스토리텔링 토크쇼 <딸깍 SHOW>를 선보였다. 그리고 해우소 팀의 <대학생 고민 페스티벌>은 다양한 체험부스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유쾌하게 풀어가는 장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DRB동일 CAMPUS D에서 진행된 U SEE 팀의 <소통해서 대통하자> 프로젝트는 공연예술과 취업상담 세미나가 만나 기업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의 장을 만들었으며, 조아팀의 <부산에서 청년 도예가로 살아남기>는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부산 청년 도예인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선통신사 기록물' 한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난 10월 24일~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13년부터 한국의 부산문화재단과 일본의 NPO법인 조선통신사연구지연락협회를 중심으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양 기관은 부산시와 나가사키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한일 양국 간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일 양국의 조선통신사 관련 전문가가 3년 간 한일 양국을 오가며 1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선정하여 신청한 등재목록은 한국 63건 124점, 일본 48건 209점으로 총 111건 333건에 이르며, 각 기록물의 소장처도 한국과 일본 전역에 이른다.

*** 한국의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학교 도서관, 충청남도역사박물관, 부산박물관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은 과거 200년이 넘게 지속되었던 한일 간 선린우호의 상징으로,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고, 세계에서 그 유례가 찾기 힘든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기록유산이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다양한 등재기념 행사도 개최되었다. 11월 24일(금) 부산시청 1층 통로에서 등재 관련 전시를 시작으로 11월 25일(토)에는 13시 해운대 구남로 광장에서 일본 요사코이 단체의 공연, 15시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등재기념 특별 공연 '여명', 17시 30분에는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한일이 하나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패널디스커션 및 관계자 리셉션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특히, 영화의 전당에서의 공연은 출연진만 2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공연으로 국악계의 사이로 불리는 국악인 남상일 씨와 손지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예술단 등이 참가하여 웅장한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한일 양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첫 사례인 만큼, 한일 양국의 주요 지자체장 및 국내 기록물 소장기관의 기관장이 참가하여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축하하였다.

재단은지금 04

원로 문학인의 뜨거운 예술혼을 만나다



지역 예술계에 뜻 깊은 행사 준비가 지난 11월 17일 진행되었다.

원로문학인들의 선집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님의 예술혼, 상생으로 통(通)하다 - 원로 문학인 출판기념회>가 바로 그것.

출판기념회는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원로예술인들에 대한 배려와 예우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재단과 지역 대표 문학단체인 부산문인협회(회장 김검수), 부산작가회의(회장 서정원)가 함께 팔을 걷고 나서서 만든 문학행사이다.

80세 이상, 창작활동 35년 이상인 문인 중 참여를 희망한 원로 문인의 신작 또는 대표작을 모아 선집형태로 출판된다. 참여 문인은 강기홍(아동문학), 객종분(아동문학), 김문숙(수필), 김상남(아동문학), 김석기(아동문학), 박달수(시조), 박송죽(시), 양원식(시조), 유병근(시,수필), 이규정(소설), 정한길(아동문학), 차한수(시), 최만조(아동문학), 최우림(시조), 최종섭(시조) 등 15명이다.

재단은지금 05

하노이에서 펼쳐진 청년문화 <SHOW ME THE BUSAN>



부산 청년예술가들이 베트남 활동의 신호탄을 알렸다.

재단은 청년예술가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진출프로젝트 기획사업 <SHOW ME THE BUSAN>을 선보였다.

본 프로젝트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BE GOODS 매장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부산의 중소기업 상품을,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의 청년문화 콘텐츠를 베트남 하노이 롯데센터에서 선보여 경제와 문화가 함께 상생하는 부산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의미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행사는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하노이 롯데센터 1층에서 진행되었다. K-pop 댄스팀 스카이치어리더와 B-boy팀 킬라몽키즈의 '부산 K-pop Dance Performance'를 24일 저녁, 25일 오후 3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부산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일 고은정, 황신애 작가의 '부산 Art&Sales Promotion' 전시 및 체험행사도 진행하여 현지인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재단은지금 06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과 생활문화 대토론회 개최

재단은 12월 15일 벅스코에서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과 생활문화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와 기획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고 향후 지역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3가지 세션별로 나눠 동시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인 <새 정부의 지역문화 정책 방향>은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서고,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발제하였다.

두 번째 세션인 <새 정부의 생활문화정책 방향>은 이춘아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좌장으로, 김기영 새정부 문화정책준비단 위원이 발제를 맡아 진행하였다.

세 번째 세션인 <새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 방향>은 박종관 지역문화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을 주재하고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이 발제에 나섰다.

발제에 이어 각 세션별 토론자들은 주제별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을 거쳐 부산 지역 문화정책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제언 등을 도출하였다.

다음날 16일에는 각 세션에 참여했던 발제자, 토론자를 중심으로 전일 진행된 토론결과를 공유하고 부산지역의 문화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펼쳤다.

재단은 이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2018년 사업방향 및 향휴 정책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재단은지금 07

마을버스 타고 만나는 부산의 숨은 속살



부산문화를 나타내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부산다움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고 문화로 소통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발간해 온 <부산문화재단 사람·기술·문화 총서 시리즈>의 그 네 번째 작품으로 부산의 마을버스를 소재로 한 「까꼬막을 오르다 이바구를 만나다 부산의 마을버스」를 발간하였다.

「까꼬막을 오르다 이바구를 만나다 부산의 마을버스」는 부산 예술가 19인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마을버스를 타고 만날 수 있는 부산 구석구석의 이야기를 담았다. 16개 구·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을 누비는 노선을 중심으로 지역의 이야기와 숨어있는 역사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 부산을 찾는 관광객 뿐 아니라 부산사람들에게도 색다른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문화의 모~든 소식 #부산문화재단

팔로우
Yellow ID
TALK

좋아요
f

부산문화재단

예술로 달리는
365일
문화의 온기로
36.5°C

f o TALK 에서 부산문화재단을 검색해보세요

혜택1
언제 어디서든 부산문화재단의
다양한 소식을 받을 수 있다.

혜택2
부산문화재단과 실시간으로
1:1상담 가능하다.

문의: 051-745-7224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배포를 희망하시는 문화공간이나 단체는 부산문화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745-7223)

감만창의문화촌 / 조선통신사역사관 / CATs 사상인
디스테이션 / 홍티아트센터 / F1963 / 민락인디트
레이닝센터 / 도시철도 북 하우스(시청역, 중앙역, 연산
역, 온천장역, 수정역) / 부산관광안내소(노포동, 부산
역, 김해공항) / 부산시립시민도서관 / 부산시 중앙도
서관 / 부산국립국악원 / 부산시립미술관 / 부산시
민회관 / 부산문화회관 / 을숙도문화회관 / 금정문
화회관 / 동래문화회관 / 영도문화예술회관 / 해운대
문화회관 /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 또따또가 운영지
원센터 / 상상공간 아르케 / 모퉁이 극장 / 부산지역
작은도서관 / 추리문화관 / 문화매개공간 삼 / 영광
도서 / 금정공영지원센터 등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 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좋아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찬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 1. 후원혜택**
 -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 재단 기념품 증정
 -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 2. 후원회원**
 - 일반회원 : 매월 1만원 정액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만~50만 정액 납부
 - 평생회원 : 500만원 이상 일시불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 3. 후원가입**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scf.or.kr → 알림마당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 문의전화 : 부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051-745-7216)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스테이션, 홍티아트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또따또가 운영센터, 영화의전당, 부산 시립미술관, 영광도서,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처 문의 : T. 051-745-7223 E-mail. photoist@bscf.or.kr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부산문화재단

TEL. 051-744-7707 FAX. 051-744-7708-9

www.bscf.or.kr

